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나라의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절 너희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2월 11일 (토) 제 1853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보수 우위’ 연방대법, 낙태권 제한으로 기울어 CT, 미시시피 낙태 관련법 타당성 두고 트럼프 임명 보수 판사들 낙태제한 지지

임신 15주 이내 중절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열린 지난 1일, 워싱턴 DC의 법원 앞에서 양 갈래로 나뉜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는 극명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24주 이내 임신중절 합법화'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반세기 만에 뒤집힐 수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의 열기도 치열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들은 연방정부 대표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송무차관과 여성단체 대표, 미시시피 주를 변호하는 스티븐 스튜어트 송무차관 등을 직접 심문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서다. 크리스천티투데이(CT)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이날 재판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임신중절규제를 강화하는) 미시시피 주 법률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온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진영이 압도적이다 (Supreme Court Abortion Case Holds Signs of Hope for Pro-Life Evangelicals: The conservative-majority Supreme Court appeared willing to side with Mississippi's abortion ban, which restricts beyond what "Roe v. Wade" allows).

전임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공화당 소속의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의료상 응급상황이나 심각한 이상을 제외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때문에 임신했다라도 중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외를 거의 두지 않았다. 주 정부는 "15주를 넘긴 상태에서 이뤄지는 중절은 산모의 건강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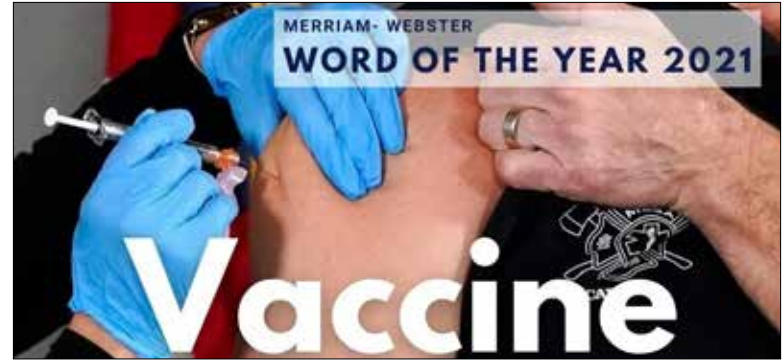
이제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임신중절클리닉 단체인 '잭슨여성건강기구'는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과 연방 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주장을 증명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보류했다. 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면 주 대법원은 지난 5월 미시시피 법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50년 가까이 미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다는 의미에서 파장이 만

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주수"인 24주 이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는 생존 능력(fetal viability)을 통상 22-24주로 보고 있다. 당시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중절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각 주의 중절금지법이 "미 수정

헌법 14조에 따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7대 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말은 곧 미 헌법이 '여성의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미시시피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임신중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다. 올해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임신중절을 합법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63%는 불법으로 인식했다.

공화당 측에선 오랫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별로 6주까지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소송에 걸려 있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교체하며 현 대법원의 정치적 진영을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꿔 냈다. 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7명의 아이 엄마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11월 8일 치러질 미 중간선거에서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풍의 핵'이 될 수 있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중절 문제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팬데믹이 언어생활도 바꿨다.. 옥스포드 올해의 단어 'VAX(백스)

영어 단어와 관련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포드 사전이 2021년 '올해의 단어'로 '백스(Vax)'를 뽑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옥스포드 사전이 올 한 해 가장 영향력 있었던 단어로 백스를 뽑았다. 백스는 '팔쪽에 백신 맞다'는 뜻의 일반 동사 'vaccinated'의 줄임말이다. 올해의 단어 후보들 역시 백신을 맞는다는 뜻의 속어 '잡(jab)'과 '샷(shot)' 그리고 '파우치 아우치(Fauci ouchie)'였다. 파우치 아우치는 감염병 권위자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의 말 한 마디에 세계의 보건정책이 달라지는 현상을 빚어 만든 신조어로, 파우치 소장의 성 '파우치(Fauci)'와 아플 때 내는 감탄사 '아우치(ouchie)'를 합성한 말이다. 이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말이다. NYT는 백스가 "이들 중 영어권

국가의 각종 방송·출판물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였다"며 "지난 9월엔 1년 전에 비해 72배 이상 사용 빈도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옥스포드 사전의 수석편집자인 피오나 맥퍼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도 사용빈도가 증가했지만 그 중 백스가 최고였다"면서 "그 자체로 짧고 강렬해 주의를 끄는 단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파생어가 넘치는 만큼 단어 자체로도 매우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옥스포드 사전의 올해 단어는 영어권 국가의 뉴스 자료에 등장하는 145억 개 이상의 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옥스포드 사전의 데이터에 기반해 선정된다. 선정 기준에는 그 해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는 동시에 앞으로 지속될 문화적 중요성이 고려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박마이크 목사 4면



인터뷰 이일훈 목사, 박수영 사모 1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ghthouse.com | c/o: 219-1@hgmj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발행인 칼럼

살 놚이여 살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떤 영화의 장르를 좋아하시는가? 서부 영화는 어떠신지? 만주를 배경으로 한 한국판 서부 영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이렇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장인물들이 대단했던 영화이다. '놈'은 가끔 친근감 있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코 점잖은 용어가 아니다. '놈'은 남자를 낮잡아 부를 때 사용되거나 아예 욕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그런데 '놈'이란 욕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그는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최후통첩을 받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앞을 지나던 사람이 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지나간 것이다. '살 놚이라고, 자기에게 '놈'이라고 하니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그 앞의 수식어는 마음에 무척 들었다. 놈은 놈인데 '살 놚'이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자기는 '죽을 놈'으로 포기하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줄 알고 지내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 놚'이 되었다.

이 시한부 인생의 자기를 향한 시각과 언어는 그때부터 바뀌었다.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나는 살 놈이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스스로 던진 그 말이 자신에게 뜨거운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씨앗처럼 수없이 뿌려진 말들은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열매를, 부정의 말은 부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 '살 놈'은 다시 살았다. 건강을 회복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게 '살 놈'이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셨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살 놈'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살롬!'이라고 평안을 기원했을 뿐이다. 듣는 자가 '살롬!'을 '살 놈!'으로 잘못 들었을 뿐이다. 아무튼 그는 살았다.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았다.

살롬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살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이다. 살롬은 축복이 넘치는 평강을 뜻한다. 살롬은 외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살롬은 내적인 평안이다. 살롬은 불의한 세상에 있어야 할 정의이다. 살롬은 허물어진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회복되어야 할 질서이다. 살롬은 싸움과 대립이 아닌 멋드러진 어울림을 말한다. 살롬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 온다. 살롬은 안전하고 완전한 변영이다. 살롬은 영혼이 잘 되고 법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도 한 것이다. 살롬은 가시 위에 피어난 장미처럼 고난을 넘어 보이고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이다.

다음 몇 문장들은 그런 뜻이 아니니 부디 육한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살 놚이여 살롬!'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롬'의 사람이다. '살롬'의 사람은 '살 놈'이다. 살롬의 사람은 '살'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롬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좋은 것이다. '살 놚이여 살롬!'

극적 변화 바라지 말고 능동적으로 인내하라

리더십저널, 도리클라크 교수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소그룹 5개 원리 소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거리두기 기간인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하여 더욱 끈끈해지고 친밀해진 소그룹도 있었지만 많은 소그룹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거리감을 경험했다. 특히 그 전까지 매우 친밀하게 발전해온 소그룹일수록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들은 일종의 좌절감마저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됐다. 전 세계가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던 중 오미크론 변이로 주춤거리고 있어 소그룹에도 위드코로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가 됐다. 소그룹 사역 중에 맞닥뜨렸던 좌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듀크대 후크아경영대학원 교수 도리클라크(Dorie Clark)는 전략적인 인내심으로 좌절감을 극복하는 다섯 단계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도리클라크는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극적인 변화를 바라며 행동하신 안 된다고 말하며,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 조언한다. 그는 조바심은 우리가 분별력 없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다섯 단계 접근법을 따라 능동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한다.

1단계, 목표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소그룹이 회복하기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몇 사람이 어디에서 몇 시간을 들여 어떤 수준의 나눔을 하기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재 우리 소그룹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모임의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어버린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 동안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회복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표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기록을 모아 함께 보면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리더와 구성원들에게 격려가 된다.

하다.

4단계, 기준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복은 일어날 것이다. 그

켜나야야 한다.

5단계, 항상 올바른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이뤄지는 않는다. 시간에 따라 상황은 변화한다. 단계적인 목표들 가운데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간 목표 실패가 전체적인 실패가 될 수 없다. 중간 지점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궁극적인 목표점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잠시 있을 수 있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체계적인 단계를 하루하루 밟다보면 거의 모든 목표들을



올바른 목표와 상황 점검하고 관계성 활용, 기준유지 좌절 말고 돌파 과정 인식 공유 새 변화 밑거름 활용

의욕만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2단계, 발전은 알아채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과 같은 친밀도가 있는 모임, 또는 이를 넘어서는 미래를 그리다 보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소그룹의 모습에 조바심이 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소그룹의 참여인원, 소요시간, 조원들의 피드백을 잘 기록해 매주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작은 지표들 통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 작은 변화는 그 순간에는

3단계, 관계성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조언자를 두고 격려를 받으며 소그룹을 회복시킨다. 특히 회복의 의욕을 갖고 있으나 현 상황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리더들에게 가까이서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리더들 간에 상호비교를 하지 않도록 관계성이 부정적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어려운 시기에는 경쟁의식보다는 각 소그룹이 자신들만의 페이스를 찾아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리나 처음에는 충분히 성공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들이 갈수록 큰 목표에 함몰돼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는 종종 커다란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그룹 사역의 절대적 성공 기준은 많은 사람에 있지 않고 눈앞의 작은 변화에 있다. 계속해서 목표지점과 끝대를 옮기면 이미 이룬 발전을 왜곡하고 지워버리게 된다.

소그룹 회복의 첫 출발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이동한 지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잘 지

달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결론으로, 다락방이나 구역 모임 또는 셀과 같은 소그룹 리더들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 있다. 누구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2021년을 보내면서 소그룹 리더들이 다섯 단계 접근법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려운 현재를 점진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눈앞의 실패감과 좌절감을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치아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보수 우위’ 연방대법...

(1면에서 계속) 패티 머레이 민주당 전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반응할 것”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대법원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변론의 주된 쟁점은 임신중절의 시점을 24주로 정한 ‘로 대 웨이드’를 유지할지, 15주로 정한 미시시피법이 맞다고 볼지에 집중됐다. 여성의 임신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태아의 독립 생존력(fetal viability), 기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대법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온건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

법원장은 연방정부·여성단체 측에 “내 생각에 여성의 선택권과 24주 이후 태아의 생존력(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15주의 시기는 여성에게 충분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도 태아의 독립 생존이 불가능한 24주 이내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5주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토머스 클러런스 대법관을 필두로 닐 고서치·새뮤얼 앨리토·브렛 캐버노·배럿 대법관 등 보수 대법관 5명은 좀 더 노골적으로 미시시피법을 옹호했다. 미 언론들은 이들이 미시시피법의 위헌성을 따지기보다는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미국의 헌

법은 중절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과 의회, 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미 헌법이 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옳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임신을 유지하는 문제는 신체 자율권 침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3인방의 스티븐 브라이어·엘리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판례가 50년 동안 15명의 대법관으로부터 반복된 적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등 특별

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전 판결을 따르는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을 지켜야 한다면이다. 그는 “바뀐 것은 대법관들의 구성 뿐”이라며 “이번 판결로 헌법과 이를 낭독하는 것이 단지 정치적 행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악취(악영향)를 대법원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은 앞으로 수일 내에 비공개 회의에서 잠정표결을 한 후 3개월에 걸쳐 다수의 견과 소수의견이 담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트러거 조항에 따라 미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이 언어생활도...

(1면에서 계속) 이번 올해의 단어 선정은 2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엔 코로나19가 언어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서도 한 가지 단어를 뽑긴 어렵다는 이유로 선정을 포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선정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조회 데이터, 주목할 만한 급증 및 매년 증가하는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백신을 올해의 단어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신에 대한 검색은 지난해 대비 601%, 2019년에 비해서는 1048%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사전 폴린스는 ‘2021년 올해의 단어’로 ‘NFT(non-fungible token의 약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반복해서 들은 유행어”라면서, 폴린스 사전은 “블록체인에 등록된 고유의 디지털 인증으로,

가 비플의 작품에 대한 권리가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6천9백여 만 달러에 팔렸다. ‘날마다: 첫 5천 일’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작가가 2007년 약속한 날로부터 날마다 창조한 영상의 집합체였다”라고 폴린스는 설명했다. 2021년 올해의 단어 후보에

후보에 올랐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앱의 알람 소리와 팬데믹의 합성어로 영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집과 사무실을 오가는 근무를 의미하는 ‘hybrid working’도 후보에 올랐다. 한편 지난해 폴린스가 선정한 2020년 올해의 단어는 ‘봉쇄(lockdown)’였다.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인내(Perseverance)’를 선정했다. 점에서 크리스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내는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것



옥스퍼드 선정 이유에 “압도적 사용 빈도수와 파급력” 메리엄-웹스터 ‘백신’ 콜린스 ‘NFT’ 캠브리지 ‘인내’

예술작품이나 수집품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달리 말해 디지털 작품이 누구에게 소속된 것인지를 기록하는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고유한(unique)’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이는 ‘대체가능’ 즉 다른 데이터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회적인’을 의미한다. NFT를 둘러싸고 대중의 상상을 사로잡은 것은 이 기술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판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초현실주의 예술

은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조어로 암호 화폐의 줄임말인 ‘crypto’,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metaverse’가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어 단어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폴린스는 “올해는 백신의 해였다. 2회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배지인 ‘double-vaxxed’ 후보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 해 제 후에도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pingdemic’도

은 동사 persevere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종종 역경(어렵거나 불행한 상황이나 사건)에도 불구하고(에 직면해) 인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2021년, 전 세계 사람들은 COVID-19 및 기타 문제로 인한 우리 삶의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인내를 보여야 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견디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표현하는 거의 항상 긍정적인 단어라고, 캠브리지 사전 편집자들은 말한다.



유행어와 신앙인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10월 3일 앨라배마 주 탈라데가 시에서 있는 나스카 자동차 경주에서 브랜든 브라운이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지 135회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운동장을 113바퀴 돌아야하지만 어둠이 내린 이유로 107번 바퀴를 돈 후에 브랜든이 승자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후 NBC 스포츠 소속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관중들이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켈리 여기자는 관중들이 우승자 브랜든을 향해 “Let’s go Brandon!”을 외친다고 전했다는데 실제 관중들이 외친 말의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관중들은 대통령을 향해 드러내놓고 욕을 했는데 인터뷰 기사는 전혀 다른 말로 옮겨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욕을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더 점잔하고 좋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완곡어법(euphemism)’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셨다’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 혹은 ‘떠나셨다’라는 표현이나 ‘소변보러 가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화장실에 가셨다’ 혹은 ‘손 씻으러 가셨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켈리 기사는 분명히 군중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Let’s go Brandon!”으로 바꾸어 완곡어법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Let’s go Brandon이라는 표현은 브랜든과는 전혀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는 문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얼마전 Southwestern 항공사 소속의 기장이 기내방송을 통해 ‘렛츠 고 브랜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바이든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렛츠 고 브랜든’이라는 표현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 버린 채 민주당과 대통령을 비하하는 완곡어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도 ‘렛츠 고 브랜든!’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볼게 됩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특정한 정치사안에 대해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반대표현을 할 때 상대를 욕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표현은 신앙인의 언어로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반대 의견 표현할 때에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훨씬 더 무게 있고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때론 기독교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종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의 대화나 논쟁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겸손의 언어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진리의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깊이 전달되어지며 설득력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우리 가슴에 품은 진리와 우리의 건강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하늘을 봅니다. hankschoi@gmail.com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성탄에 즈음하여

밤이 깊을 때 동이 트는 새벽은 가까워지게 된다. 역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깊은 영적 흑암에 들어갔다. 무려 4백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꿈으로나 환상으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귀뜸도 하지 않으셨다. 고로 인생들은 그저 그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죽은 계명을 습

관처럼 읊어대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캄캄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평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 붙잡혀 2년여 동안을 숨 막히게 견디어 내야 했다. 수년전, 마스크 없이 찍었던 사진들을 그리움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경험했던 영적 캄캄함을 비척거리며 지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은 1년여 만에 백신을 만들게 섭리하셨고, 한시

름 놓게도 하셨다.

백신이 없을 때의 처참했던 상황, 하루에 수백 명이 속절없이 죽어야 했고, 화장장이 부족하여 화물트럭에 시체를 싣고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600Km를 달려가기도 했다. 그 뿐인가? 부모나 친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슬픔을 삭여야 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한 마디로 환란이었다. 어쩌면 이런 캄캄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 일찍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여보내 40여 년간 훈련시켰던 것처럼, 인생은 연약하여 이런 혹독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돌

이킬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얼마 전 EU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Holyday라는 말을 쓰도록 하라고 했다. 비 기독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천 년 전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헬라로 건너감으로 유럽은 생명의 복음을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놀라운 선진국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분을 허물려고 한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순간이다.

유럽은 자유를 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건너온 이민자들이 많다. 그들이야말로 선교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생각하여 성탄의 빛나는 의미를 땅에 던지려는 작태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영적 자책골이 아닌가 싶다.

캄캄할수록 빛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울수록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말이다. 그것만이 나그네 길을 걷는 모든 인생들이 붙잡아야 진정한 소망이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 박마이클 목사

(뉴욕 한마음침례교회, GCFA 중국인교회)



모든 개신교 교파가 전도, 선교의 목표,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고, 특별히 세계 최대 선교단체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남침례회선교부(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전도, 선교에 대한 교육과 행정, 결과가 뛰어나다.

예를 들어 CWT-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 정한 CWT는 Continuing Witness Training의 약어로서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연구, 개발된 관계중심적 전도 훈련이며 그 외에도 선교 전략에 다수가 있다. 현대사회에 전도의 큰 장애요소인 대인관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CWT는 기존의 Human Network를 전도현장에 충분히 활용한다. 또한 지난달 9월에는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MB)는 최근 국제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선교사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 1. 전도와 선교

선교(missions)라는 말은 ‘보낸다’(send)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mitto’에서 파생.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라는 말은 희랍어의 유(eu: 좋은)와 앙겔리아(aggelia: 소식)라는 말에서 파생. 영어의 전도(Evangelism)는 희랍어인 유앙겔리제스다이(εὐαγγελίζεσθαι)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이다.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은 동일하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전도라는 개념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선교라는 개념은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의 모든 전도활동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성경에 나타난 선교

성경에는 “선교”(Mission)이라는 단어는 없다. 라틴어 “mitto”(mittere, missio)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이다. 명사형일 때 ‘내보냄(sending out)’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를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창39:21-23).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할 때에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심(창41:1-



## 성경 속의 선교 방법 마태복음 28장 18-20절

외교관을 보낼 때는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낸다. 그런 경우 mission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종교적으로 mission이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3. 선교 Mission-복음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사역했던 사람들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요셉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 형제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고 했다.

(1)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을 부르셨다(창37:5, 9).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었다(창39:2-6).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

(2)모세의 선교 방법 하나님 음성에 (여러 모양으로 거절하다가) 순종함으로 바로 왕에게 가게 되고 상상도 못할 바로왕의 악한 책망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다.

3)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선지자들

(1)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고 (2)이들의 선교 방법은 자기들의 계획과 실행이 아닌

누가복음 10:17-20 (1)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전도, 선교사라면 바울을 꼽는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심히 떨었다고 실토한 후에 곧바로 전도에 결심이 맺히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밝혔다(고전2:1-5).

### 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 예수님의 선교 Mission 1) 요한복음 3:17 2) 요한복음 4:34 3) 요한복음 6:37-40

2)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할 일을 하셔야 할 줄을 분명히 아셨다. 3) 죽기까지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순종(빌2:5-8).

### 5. 복음 전할 때에

1)성문 걸,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전한다(잠8:3). 2)무슨 일이 생겨서 떠들썩하고 울음이 있을 때에도, 또한 성문 어귀, 성 중에서도 전한다(잠1:21). 참고)원화(喧嘩): ‘원-떠들썩할 원, 화-떠들썩할 화’는 ‘떠들썩함, 울음’을 뜻함. 3)어두운 데서도, 광명한 데서도, 골방에서도, 지붕 위에서 전한다(눅12:3). 4)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딤후4:1-2).

### 6. 결론

성경 속의 선교 방법은 (1)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가까이 있고 (2)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민감하며 (3)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그 방법대로) 따라서 (4)죽기까지 순종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5)왜냐하면 선교, 전도는 영적 전쟁이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evpakm@gmail.com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며, 말씀대로 미션 Mission을 수행했다.

4)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0:1-11

(2) 예수님의 선교방법 1) 새벽에 혹은 밤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아버지께 말씀을 올리기를 위해 시간을 가졌다(막1:35).

15). (2)요셉의 선교 방법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갈 때에도, 옥에 갇힐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불평하지 않았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았다. 창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다면, 누구보다도 요셉 자신이 여호와께서 자신과 가까이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목목히 맞부딪치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따름.

2)모세 출애굽기 2:23-25 출애굽기 3:1-10

(1)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애굽왕이 이스라엘 남아가 태어날 때 죽이라 하는 시점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숨겨 키우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 아들로 키우게 함.

모세가 친모의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장성한 후 히브리인에 대한 정의감으로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됨.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가르치는 건강한 문화센터, Tvnext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Tvnext(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는 미국 안에서 넘쳐흐르는 반기독교 공립 교육과 SNS, Netflix 등등의 반기독교 문화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차세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Biblical Culture and Media - 성경적 문화와 미디어" 사역을 확장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반기독교 문화와 공립교육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문제해결책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10년전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그 행정부의 "Common Core STD-CCSS" 라는 공립교육 정책에 포함되었던 SOGI(Sexual Orientation & Gender Identity) 라는 정책으로 인해 정체성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금 성경말씀 전체를 불신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말씀을 자기들 편한대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군사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 알파벳" LGBTQ 알파벳 책을 읽는 "WOKE BABY"

"WOKE BABY" 영상은 반기독교 문화전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악의 군사들을 야기 때부터 키워내는 모습이 담겨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퍼뜨릴 수 있는 세력의 전도자/군사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책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동성애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Preschool 아이들에게까지 읽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영상의 아기가 J for Joy 라고 있는데 이 책이 Joy 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Gay라는 단어는 올드 프렌치 가이에서 12세기에 영어로 넘어왔는데 게르만소에서 그 원래 의미가 "기쁨, 밝고 화려함" 등인 것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남자 동성애자"의 명칭을

원어가 "기쁨"인 "Gay"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래 동영상 전체내용은 tvnext.org 가서 "게이 알파벳" LGBTQ 알파벳 책을 읽는 "WOKE BABY"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사진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 참조 하세요.

10년전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정체성 정치 혁명 Identity Politic, Identity Revolution"은 지금 "성정체성 혁명-Sexuality Revolution"으로 이어져 지금의 열매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뼈저리게 아픕니다. 그 이유는 그 열매를 우리 차세대인 자녀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교역자, 학부모, 크리스천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10년전 저희단체가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악법반대운동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은 저희가 외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사역을 "정치"로 오해하셨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차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동영상: 양의 털을 쓴 늑대를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에서의 동화책에

서 배우기.

아래 동영상도 Tvnext.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Summary와 아이들과 나눌 포인트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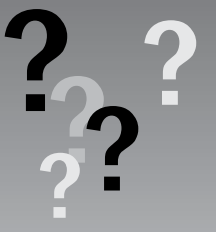
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썩고 부패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거짓과 미혹에 빠져 영혼까지 팔고 있는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shall be added onto you"("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6:33).

크리스마스전까지 크리스마스에 연결된 가족영화, 자녀들과 함께 감상할 뿐 아니라 질문들을 통해 가정예배나 식사자리에서도 쉽게 나눌 수 있는 토론 질문들도 나눌 예정입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요즘 성령님에 대해 성경공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내 삶에서 느끼며 그 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또한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구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한번 강렬한 은혜체험도 필요하지만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님과 교제와 교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LA 남쪽의 샌디에고 가는 길에 산 주안 카피스트라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인데 비둘기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원색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만지려면 비둘기에게 가까이 가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펴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서 5분, 10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어느새 손바닥에 와서 내려앉습니다. 그때 살그머니 잡으면 비둘기가 쉽게 만지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내 열심이나 열정만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조용히 손을 벌리고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비둘기가 내 손바닥에 내려앉듯이 성령님께서 어느새 내 마음에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은 노력으로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 그분의 뜻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왕영거린다는 뜻에서 허밍이라고 이름을 지

###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 지속

은 새입니다. 한국말로는 별새입니다. 별같이 작은 새라는 말입니다. 길이가 6센티 정도 되는데 1초에 50-70회 정도로 정신없이 날게 짓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날게 짓을 하지만 오래 못갑니다. 그 새는 4년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90센티 정도 되는 아주 큰 새입니다. 날개를 퍼면 약 3.5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주체에 무려 80세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합니다. 나는 것의 90% 이상을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날게 짓은 기껏해야 1% 미만입니다. 온 몸을 바람에 맡깁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늘 성령님께 이끌리어 사셨고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차타고 갈 때나 주부가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찾으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일도 내 힘과 노력보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역을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널 위해 여기 있을게

한 달 전 11월 8일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현역 감독 13인이 참여하는 '워싱턴DC 리더십 정상회의'가 11일까지 나흘간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현역 감독 전원이 참가하는 최초의 해외 행사였으며, 행사의 시작은 11월 3일 조선에 파견된 감리교 최초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12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비 제막식이 아펜젤러의 고향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사우더튼(Souderton)에

서 참석하여 함께 기념하며 시작됐다.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복음의 빛을 진 한국 감리교회 대표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며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과 후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감독들은 주일인 11월 7일, 워싱턴 지역의 미국인 교회, 한인 교회, 다인종 교회,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교회로 흩어져 설교를 하였다. 남편이 Senior Pastor로 사역하는 우리 St. John's UMC도 서울연회 이광

호 감독(도봉감리교회)을 11월 7일 주일예배 설교자로 모시며 이번 행사에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미국인 회중교회를 8년째 섬기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은 우리부부에게도 처음이었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설교자이신 이광호 감독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남편이 통역을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여 개인적으로 나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로 한국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성도님들도 이런 특별한 예배에 모두 기대가 되는 주일이라고 말씀하셨다. 120년 전 아시아에 작은 나라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훗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자신의 모국인 미국에서 미국인회중 교회를 사역하는 한인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많은 의미를 담은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위에 설교자감독님과 옆에 남편이 함께 서며 설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참 힘든 해였습니다. 이번 All Saints Sunday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 코로나와 싸우다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가족, 친구, 이웃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디에 계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온화하지만 힘이 있는 음성의 한국어 설교말씀은 미국인 회중으로 가득한 이곳에 내 귀에 쫄쫄 들어왔다. 마치 늘 미국인 회중교회 사역에 부족함을 염려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듯,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어는

다르지만 한 성령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힘은 남편의 통역으로 듣는 성도님들도 매우 집중하여 들으며 때로는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함께 말씀에 응답하고 있었다.

감독님의 설교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내가 겪는 "문제"보다 "나 자체"를 바라보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감사하게 되며 "내가 너를 위해 여기에 있다(I am here for you)"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셨다. 우리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당부와 축복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다. 예배 후 인사를 나누며 성도님들은 설교자의 깊은 영성이 느껴지는 감격스러운 예배와 설교였다는 얘기와 함께 많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회를 경험하며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문화와 언어의 이해에 여전히 많이 부족한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통해 120년 전 처음 선교사들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 옆에 함께 있어주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까지 이어졌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들 옆에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있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옆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끼는 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12월,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또 새 해를 계획하며 나는 가족과 친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할 것이다.

"걱정하지마! 내가 널 위해 여기 있을게! Merry Christmas!!"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가정교회 설립 불법 아니다"

이란 대법원이 최근 가정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지난 3일 보도했다.



판결에서는 "기독교를 알리는 것과 가정교회 설립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법원 판결로는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란 기독교인 20여명이 그들의 신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일각에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 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혁명 수비대 같은 법원은 종종 비공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이란 내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인 아르메니아교회와 아시리아교회의 종교 활동은 인정하지만 개종자들의 가정교회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매일 성경읽기, 코로나 이전대비 24% 증가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돌파한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 이용 빈도가 올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헤드라인스는 2일 유버전 앱이 제공하는 일일 성경 읽기 참여율은 2020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24%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유버전이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이용자들은 558억 장의 성경을 읽고 82억 장의 오디오 성경을 들었다. 이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계된 성경 읽기 참여율을 토대로 한 결과이며, 주일에는 더 급증한다고 한다. 2021년 앱 신규 가입자 수는 2020년의 그것보다 적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그것보다는 많았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이다. 이 구절은 가장 많이 강조되고 공유와 북마크됐다.

유버전 측은 "지난 2년간 성경 참여 패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며 "2020년 3월,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다닐 수 없었을 때, 평일 성경 참여는 10% 증가했고 이후 몇 주간 계속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교회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성경 참여가 급증했지만, 평일 성경읽기 참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친구와 성경읽기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앱 기능은 코로나 발생 전보다 올해 50%나 더 많은 이용자가 생겨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유버전의 창립자이자 미국 라이프교회의 교역자인 바비 그룬왈드 목사는 "기록적인 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만든 매일의

성경 참여 습관을 이어간다는 사실에 흥분된다"며 "사람들이 처음의 필요했던 순간을 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깊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 출시된 이 앱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1,7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EU, " '크리스마스' 대신 '홀리데이' ...

EU가 포용성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대신 '홀리데이'(holiday)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EU는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포용적인 대화'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으나 바티칸 및 이탈리아 정치인들의 비난을 받아 이를 철회했다.

약 3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모든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으며,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날짜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다. 예민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전 유럽의회 의장은 이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포용은 EU의 기독교적인 뿌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 평등위원회 헬레나 달리(Helena Dalli)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이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타자니는 "'미스터'(Mr), '미스'(Ms)와 같은 용어들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엠엑스'(Mx)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대명사를 '선호'하는지 물어선 안 된다. 이는 성 정체성이 개인의 선호라고 가정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물어보라. '당신의 대명사는 무엇인가?'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리 위원장은 이번 지침의 철회소식을 알리면서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침을 만든 처음 의도는 위원회 직원들이 더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무 안에서 대화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신념을 지닌 유럽인들에게 유럽 문화의 다양성과 유럽위원회의 포용적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침이 이러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성숙한 문서가 아니고, 위원회의 모든 평등 기준에 맞지 않다. 이 지침은 분명히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침을 철회하고 이 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생체로봇, 스스로 '새끼' 만들어

개구리 세포로 만든 생체로봇 '제노봇(Xenobot)'이 주변 다른 세포를 끌어모아 '새끼 제노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봇을 개발한 미국 연구진은 "과학계에

알려진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물학적 번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제노봇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 배아에서 줄기세포 3000개를 굽어내 배양하는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살아 있는 로봇'이다. 섬모로 덮인 C자 모양에 지름 1mm 미만으로 인체 내부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음식 섭취 없이 몇 주 동안 생존하고 자가 치유도 가능하다.

논문 주저자인 조슈아 본가드 미 버몬트대 컴퓨터과학 교수는 공개 당시 "이것은 새로운 살아 있는 기계"라며 "그들은 전통적 로봇도 아니고, 기존에 알려진 동물 종도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유기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구진은 제노봇이 주변 단세포를 흡수해 자가 복제를 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했다. 제노봇은 배양접시를 돌아다니며 흡수된 줄기세포 수백개를 흡수해 닻새 만에 새로운 제노봇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공동저자인 마이클 레빈 미 터프츠대학 생물학 교수는 "개구리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번식 방법을 갖고 있지만 배아에서 세포를 해방시켜 다른 환경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아낼 기회를 제공하자 새로운 이동 방법은 물론 분명히 달라진 번식 방법까지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본가드 교수는 "대부분은 로봇을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보다 '인간을 대신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로봇을 규정한다"며 "그런 점에서 제노봇은 로봇이지만 유전자 조각이 이뤄지지 않은 개구리 세포로 만든 분명한 생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제노봇은 1940년대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는 초기 기술로 아직 실용적인 응용 분야가 없다. 연구진은 분자생물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수거, 재생의학 등 인체와 환경에 관한 여러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美서도 지배종 가능성...

미국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이었으므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셀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3일 CNN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2일에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에는 네브래스카·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미주리주 등에서 11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됐다. 현재까지 미국 내 최소 9개 주에서 20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렌스키 국장은 초기 데이터와 돌연변이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상승세다. 뉴욕타임스(NYT) 집계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최근 일주일 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주 전 대비 4% 증가한 9만464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렌스키 국장은 미네소타주 오미크론 확진자가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감염된 사실을 거론하며 "어쩌면 이걸 사실 백신 실패 사례라기 보다는 백신 성공 사례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지만 경미한 증상만 있었고 그마저도 금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가 여전히 최대 근심거리"라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 수칙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례 중 백신 접종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 보건안전청(HSA)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까지 나온 오미크론 감염 사례 22건 중 12건은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 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은 "오미크론 변이가 면역 상태를 어느 정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입원 환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사망자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아직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 보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탈레반, 강제결혼 금지령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점령한 탈레반이 최근 소녀 매매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제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등 새 여성 인권 신장 조치를 내렸다. 최근 아프간의 여아 강제결혼에 대한 국제아동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제사회의 인정을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



3일 CNN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하드 탈레반 대변인은 포고령 발표와 함께 "여성은 재산이 아니고 고귀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여성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남편이 숨진 경우 누구도 재혼을 강요할 수 없으며, 여성 스스로 재혼 여부를 선택한다고 돼 있다. 숨진 남편 등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아프간에서는 9세 소녀가 55세 남성에게 팔려가는 일이 보도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아프간 내에서도 매매혼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달 13일 성명에서 "지참금을 받고 생후 20일 된 여자아이가 매매혼 대상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극도로 끔찍한 경제난이 아프간 소녀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매매혼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탈레반이 8월 15일 재집권한 뒤 아프간의 경제난은 심각해졌고 매매혼이 급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다수 여성은 일자리에서 쫓겨나 집에만 머무르게 됐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36. 김형근(1865-?)

‘호항 도착 승객 명단’에 따르면 김형근(Kim Hyeng Keun)은 1865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가양리에 거주했다. 가양리는 세 곳에 있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가양리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리다. 그가 거주했다는 가양리는 이 세 곳 중 한 곳일 것이다.

위의 ‘호항 도착 승객 명단’에 따르면 김형근은 39세이던 1904년 11월 2일에 퍼시픽 메일 선박 회사 소속의 만주리아 선박을 이용하여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홀아비로 11세의 딸 보비와 6세의 딸 이분과 9세의 아들 계봉의 세 자녀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당시 지참금은 최고가 50달러였는데 그는 50달러를 지참하였고, 세 자녀는 각각 20여 달러를 지참하였으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했다.

#### 교회 사역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역자 명단’에 나타나는 김형근(Hyong Keun Kim)이 위의 ‘호항 도착 승객 명단’의 김형근으로 보인다. 김형근의 교회 사역은 1907년 3월부터다. 그가 하와이에 온 지 3년이 되던 해다. 그는 ‘북쪽의 정원 섬’으로 알려진 가와이섬의 엘리엘리교회와 콜로아교회 등 두 교회를 담임했다. 이듬해 1월 보고에 따르면 엘리엘리 교회에는 학습교인이 53명이었고, 세례교인이 32명이었으며, 유아세례교인은 19명이었고, 주일 학교가 세 곳에 있었는데 10명의 교직원 이 80명의 학생을 지도했으며, 자체 교회와 사택이 있었고, 이 두 건물의 값은 각각 150달러였으며 이들 두 건물을 수리하는데 135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해 그는 김이제가 섬기던 같은 섬에 있는 막가벨리교회의 권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1908년 1월에 김이제가 김형근이 담임하던 위의 두 교회에 파송되었고, 김형근은 김이제가 담임한 엘리엘리교회에 권사로 파송 받아 섬겼다.

1909년 3월에 김형근이 다시 위의 가와이 섬의 엘리엘리교회와 콜로아교회로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엘리엘리교회는 신실한 교회로 알려졌고, 엽월 청년회가 활발했으며, 주일학교가 재미있었다. 한인 노동자의 거주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농장 지배인은 김형근의 교회 사역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해에 김형근은 지방 전도사 1년 차 훈련생으로서 받은 80점은 9명의 지방 전도사 중 중간 성적이었다. 그해에 위의 두 교회에는 권사가 없었다.

그런데 1910년에 실시한 미국 연방정부 인구조사에 따르면 44세의 김리봉(Kim Le Pung)이 하와이 가와이 섬 엘리엘리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시무했다.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역자 명단에 1910년 엘리엘리교회 담임목사는 김형근(Kim Hyong Keun)이었으므로 김형근의 다른 이름이 김리봉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추측은 두 가지 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1910년 미국 연방정부 인구조사에 기재되어 있는 김리봉(Kim Le Pung)이 1904년에 하와이로 입국한 홀아비로 적혀 있어 ‘호항 도착 승객 명단’의 김형근(Kim Hyeng Keun)과 입국 연도와 결혼 상태가 같다.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영어 알파벳이 소리 나는 대로 기재자가 적당히 적었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두 자녀인 17세의 아들 Kim P. Ke와 14세의 딸 Kim Abuen이 ‘호항 도착 승객 명단’에 적혀 있는 아들 Kim Kei Pong과 딸 YeBoon 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김형근의 17세의 첫째 딸 김보비가 1910년 인구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딸은 타주에 거주하였거나 결혼하였을 것이다. 35세의 한변태가 김형근의 집에 하숙하였으므로 거주자 수는 여전히 네 명이였다.

그리고 김리봉(김형근)과 그의 두 자녀와 하숙생의 이름 등 4명의 이름이 본 지역의 인구조사서의 첫 장에서 제일 위에 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적힌 것으로 보

아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인구조사에 응했다. 그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 응답자였음이 흥미롭다.

1910년 인구조사에서 볼 때 김형근이 엘리엘리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엘리엘리교회를 목회하였고, 인근 콜로아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였음을 짐작하게 된다.

1910년 연회록에 따르면 한인교회의 총 권사수가 27명이었고, 이중 가와이 섬에 5명의 권사가 있었다. 1910년 당시 가와이 섬에는 김형근의 두 교회를 포함하여 김영식이 다스 교회를, 김이제가 두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김형근의 두 교회에 적어도 한 명의 권사는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10년 미국연방인구조사에 나오는 한인들을 살펴보면 김형근이 목회하던 엘리엘리교회와 콜로아교회의 교인을 알 수 있다. 엘리엘리에 거주한 한인가정으로는 44세의 김형근의 가정(17세 아들 계봉, 14세 딸 이분) 외에도 31세의 공양조(31세)의 가정(21세 부인 공강정, 2세 딸 명선, 3달 딸 한영), 27세의 김봉국의 가정(29세 부인 김갑정, 6세 아들 수선, 쌍둥이로 보이는 2세 아들 모세와 딸 해나), 44세 박사봉의 가정(37세 부인 박 씨, 12세 아들 태술, 35세 박원공의 가정(35세 부인 박 씨, 12세 딸 명실, 9세 딸 순금, 1살 아들 마태), 53세 전호영의 가정(27세 부인 전정박, 9세 아들 이조, 4세 딸 숙이, 1세 딸 경숙), 그리고 37세 주영남의 가정(30세 부인 박씨)으로 총 8가정이었다.

그리고 총각이거나 홀아비는 김박원(28세), 박삼채(38세), 박연설(50세), 박진배(29세), 박정원(38세), 성명첨(32세), 심영홍(37세), 영채근(38세), 이명식(45세), 이술선(47세), 이후동(27세), 이천설(47세), 정V선(31세), 정서문(26세), 정영안(30세), 주원경(53세), 추이완(30세), 하선P(26세), 하최민(27세), 하태겸(44세), 한변태(35세) 등 21명이였다.

그러므로 엘리엘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성인 남자가 29명, 성인 여자가 7명, 어린이가 14명이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했다면 성인 교인은 36명, 주일학교 어린이는 14명이 되어 총 50명이 된다.

그리고 콜로아에 거주한 한인들은 45세 김성방의 가정(35세 부인 김 씨, 16세 아들 방룡, 3세 아들 만길, 9달 아들 차길), 48세 김채건의 가정(32세 부인 헬렌, 9세 아들 커보스트, 7세 아들 계산, 4세 아들 태길, 2세 딸 카야오키), 54세 김철경의 가정(62세 부인 함 씨, 21세 아들 철성), 39세 민후신의 가정(41세 부인 유 씨, 19세 아들 이남, 8세 딸 사림, 3세 아들 앤남), 34세 박 씨의 가정(9세 아들 태박, 7세 아들 태산), 46세 성광성의 가정(30세 부인 루 시, 11세 아들 송홍, 9세 딸 박곰, 4세 아들

도마, 15세 딸 마리아), 38세 소장순의 가정(36세 부인 루이스, 2세 딸 메이, 2달 딸 데이지), 34세 이기영의 가정(30세 부인 마티, 7세 딸 도티, 2세 아들 제임스), 37세 이종관의 가정(26세 부인 이 씨, 12세 아들 호선) 등 9가정이였다.

총각이거나 홀아비는 강하추(30세), 권도인(22세), 김 씨(65세), 김경식(34세), 김관일(37세), 김광은(35세), 김달인(39세), 김덕새(30세), 김덕환(47세), 김돈철(29세), 김동수(36세), 김만설(40세), 김성운(51세), 김성진(22세), 김세화(34세), 김시룡(30세), 김영구(37세), 김양배(27세), 김용주(36세), 김용필(31세), 김진조(29세), 김향남(33세), 김향식(67세), 김현숙(31세), 김형근(55세), 문방석(31세), 박기봉(29세), 박영기(38세), 박정복(17세), 백방화(21세), 소성운(30세), 신진수(45세), 양양소(28세), 연성오(31세), 우정조(34세), 우항모(44세), 윤태원(38세), 은진중(30세), 이성릉(28세), 이성심(25세), 이성해(36세), 이순방(28세), 이순선(34세), 이완일(25세), 이윤오(37세), 이정김(26세), 이천일(31세), 인부김(55세), 전유박(19세), 정성명(31세), 정익환(24세), 조경천(27

에 지방 전도사의 1년급 학생이였다. 그 해 그는 김광현, 최운숙, 김채성, 이관목 그리고 박정수와 더불어 지방 전도사증을 갱신했다. 1912년에 출간한 제3권 제8호의 ‘대도’에 따르면 콜로아교회 전도사가 김형근이였다. 그해 본 교회임원은 권사에 정인수와 오용택이였으며, 속장에 김정근과 안형견과 박중운이였고, 주일 학교 선생에 이종관이였으며, 유사(재정 담당 집사)에 박운경과 박경화이였다.

김형근의 교회사역은 전도사로서 3년과 권사로서 1년으로 총 4년이 된다.

학교 사역

김형근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담당했다. 그는 1910년 3월에 가와이섬의 엘리엘리와 콜로아에 있는 한인학교로 파송을 받았다. 이듬해인 1911년 3월에는 가와이섬의 엘리엘리에 있던 한인학교로 파송받았고, 1913년 3월과 1914년 3월에도 같은 학교에 파송 받았다.

1908년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록에 따르면 소학교와 야학교와 국어학교 등 세 학교가 있었다. 1909년에 발간한 현순의 ‘포와유람기’에 따르면 하와이에 한국 소학교 제도를 좇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한인공립소학교가 있었는데 “누구 누구의 구별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인 남녀아동들도 이 학교에 통학하여 영어를 능통히 하게 되었는데 혹은 일어, 영어에 통하는 아동들도 많았다.”

1913년과 1914년에도 엘리엘리와 콜로아에 이런 소학교가 있었다면 김형근이 이 소학교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0년 인구조사에서 엘리엘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14명이였으므로 학생수가 1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현순의 ‘포와유람기’에 야학교가 1908년에 10곳에 있었고 영어, 국한문, 산수 등을 가르쳤다. 1913년과 1914년에도 엘리엘리에 야학교가 있어 김형근이 야학교를 담당했을 것이다. 1910년의 인구조사에서 남녀 성인이 총 36명이었는데 야학교의 학생수가 족히 3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국어학교는 1907년 11월에 가와이섬 엘리엘리 지방에 설립한 육영학교로 보인다. 1905년부터 각 지방 교회마다 국어학교를 설립하고 매일 몇 시간씩 한글을 가르쳤는데 김형근이 육영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을 것이다. 1910년 인구조사를 참조하면 육영학교의 학생수가 10여 명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김형근의 학교사역은 총 5년간이다.

김형근의 이후 행적은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역자 명단’에서는 찾지 못했다. damien,sohn@gmail.com

Kim Le Pung	Head	17
Kim P. Ke	Son	14
Kim Abuen	Daughter	14
Alan Pong Tai	Daughter	14

김리봉(김형근)의 1910년 인구조사

### 도미 3년 후부터 하와이 가와이섬 두 교회 사역... 형근, 리봉으로도 기재 한인학교에도 파송 받아 소학교, 야학교, 국어학교(육영학교)에서도 사역

배(29세), 박정원(38세), 성명첨(32세), 심영홍(37세), 영채근(38세), 이명식(45세), 이술선(47세), 이후동(27세), 이천설(47세), 정V선(31세), 정서문(26세), 정영안(30세), 주원경(53세), 추이완(30세), 하선P(26세), 하최민(27세), 하태겸(44세), 한변태(35세) 등 21명이였다.

그러므로 엘리엘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성인 남자가 29명, 성인 여자가 7명, 어린이가 14명이였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했다면 성인 교인은 36명, 주일학교 어린이는 14명이 되어 총 50명이 된다.

그리고 콜로아에 거주한 한인들은 45세 김성방의 가정(35세 부인 김 씨, 16세 아들 방룡, 3세 아들 만길, 9달 아들 차길), 48세 김채건의 가정(32세 부인 헬렌, 9세 아들 커보스트, 7세 아들 계산, 4세 아들 태길, 2세 딸 카야오키), 54세 김철경의 가정(62세 부인 함 씨, 21세 아들 철성), 39세 민후신의 가정(41세 부인 유 씨, 19세 아들 이남, 8세 딸 사림, 3세 아들 앤남), 34세 박 씨의 가정(9세 아들 태박, 7세 아들 태산), 46세 성광성의 가정(30세 부인 루 시, 11세 아들 송홍, 9세 딸 박곰, 4세 아들

세), 조만호(29세), 주형경(31세), 차완식(47세), 최기서(32세), 최기영(39세), 한용성(24세), 한진운(34세), 함완석(23세), 함양명(31세), 호규기(42세) 등 62명이였다.

가정과 총각 또는 홀아비를 합치면 성인 남자가 71명, 성인 여자가 8명, 자녀가 22명이다. 그런데 자녀 중 20대가 한 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했다면 성인 교인은 성인 남녀와 20대 자녀 한 명을 포함하여 80명이 되고, 주일학교 학생수는 20대의 자녀 1명을 제외하면 총 21명이 된다. 그러므로 총 교인수는 101명이 된다.

1910년 3월에 김형근은 엘리엘리교회와 콜로아교회 전도사로 파송되었다. 이해에도 그는 지방 전도사 1년차였다. 이듬해 3월 보고에 따르면 엘리엘리교회의 학습교인은 26명이였고, 세례교인은 41명이였으며 유아세례교인은 9명이였다. 본 교회는 내지선교와 교회 확장선교를 위해 11달러, 일반교육을 위해 1달러, 주일학교를 위해 1달러 등 총 13달러를 연회에 보냈다.

1912년 3월의 하와이 연회록에 따르면 김형근은 장Y.W.와 최Y.C.와 함께 1912년

에 지방 전도사의 1년급 학생이였다. 그 해 그는 김광현, 최운숙, 김채성, 이관목 그리고 박정수와 더불어 지방 전도사증을 갱신했다. 1912년에 출간한 제3권 제8호의 ‘대도’에 따르면 콜로아교회 전도사가 김형근이였다. 그해 본 교회임원은 권사에 정인수와 오용택이였으며, 속장에 김정근과 안형견과 박중운이였고, 주일 학교 선생에 이종관이였으며, 유사(재정 담당 집사)에 박운경과 박경화이였다.

김형근의 교회사역은 전도사로서 3년과 권사로서 1년으로 총 4년이 된다.

학교 사역

김형근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담당했다. 그는 1910년 3월에 가와이섬의 엘리엘리와 콜로아에 있는 한인학교로 파송을 받았다. 이듬해인 1911년 3월에는 가와이섬의 엘리엘리에 있던 한인학교로 파송받았고, 1913년 3월과 1914년 3월에도 같은 학교에 파송 받았다.

1908년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록에 따르면 소학교와 야학교와 국어학교 등 세 학교가 있었다. 1909년에 발간한 현순의 ‘포와유람기’에 따르면 하와이에 한국 소학교 제도를 좇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한인공립소학교가 있었는데 “누구 누구의 구별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인 남녀아동들도 이 학교에 통학하여 영어를 능통히 하게 되었는데 혹은 일어, 영어에 통하는 아동들도 많았다.”

1913년과 1914년에도 엘리엘리와 콜로아에 이런 소학교가 있었다면 김형근이 이 소학교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0년 인구조사에서 엘리엘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14명이였으므로 학생수가 1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현순의 ‘포와유람기’에 야학교가 1908년에 10곳에 있었고 영어, 국한문, 산수 등을 가르쳤다. 1913년과 1914년에도 엘리엘리에 야학교가 있어 김형근이 야학교를 담당했을 것이다. 1910년의 인구조사에서 남녀 성인이 총 36명이었는데 야학교의 학생수가 족히 3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국어학교는 1907년 11월에 가와이섬 엘리엘리 지방에 설립한 육영학교로 보인다. 1905년부터 각 지방 교회마다 국어학교를 설립하고 매일 몇 시간씩 한글을 가르쳤는데 김형근이 육영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을 것이다. 1910년 인구조사를 참조하면 육영학교의 학생수가 10여 명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김형근의 학교사역은 총 5년간이다.

김형근의 이후 행적은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역자 명단’에서는 찾지 못했다. damien,sohn@gmail.com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4)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교회)



3) 각 사람이 교리문답서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처음에는 성도들이 교리문답서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함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라. 만약 그들이 거의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외워보도록 하라.

4) 그들이 배운 바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추가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그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알아보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제쳐두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라. 양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

해서 그들 마음속에 진리가 꼭 심겨지도록 하라.

6) 그들이 아직 회심한 것 같지 않으면 몇 가지 질문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그들이 유식하던 무지하던 만약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들면 그들의 영적상태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던져보라. 그의 인생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다. 그의 신앙은 미미한데 이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지옥을 면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장차 올 삶에서 누릴 행복이다.

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라. 첫째로 당신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려 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에 구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 둘째로 당신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며 얼마나 잠깐 후면 차가운 무덤 안에 놓게 되는지 또 믿음의 보배를 얻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영벌에 바치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로 나는 당신에게 이 복락과 구주를 지금 곧 지체 없이 받아들이도록 권면한다. 넷째로 당신의 예전 죄를 지금 곧 끊으라. 즉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인침을 받고 마지막에 완전해질 때까지 이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라. 첫째로 당신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마

해두라.

모든 교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았는지 기록하라. 또 성찬식과 기타 성례전에 합당하지 않은 만큼 무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점검하라. 각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다음 번에 만날 때는 그 부족한 면을 집중적으로 채워주라.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인데, 그런 반항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신자로 커갈 수 없기 때문이다.

11) 훈련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목적에 적합함 자료와 훈련방식에 관해 살피라.

사람들의 대화에 있어 내용뿐 아니라 방법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태도와 방식에 관해

### 오늘날도 적절히 적용될 목회지침서이며 흡입적인 각성제 사명감 고취, 교리 심방의 실제적 내용 실천의지 강화시켜

지라도 너무 어렵거나 미심쩍은 문제는 묻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양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단어보다는 사물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그대가 설명해준 두 가지 예시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내라. 만약 양들이 그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면 그와 동등한 다른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덧붙인 질문을 해서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라. 만약 그들이 당황하여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너무 강하게 혹은 오래 그들을 다그치지 말라.

5) 그들의 지식을 점검한 다음 직접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라.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본 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가르침은 그들의 수용능력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면 다시 반복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7)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하라.

그러나 만약 그대가 이전부터 그 사람의 무지함을 알고 있거나 혹은 후에 질문들을 통해 그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 그대의 다음 할 일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그 사람이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자각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특히 간절히 그에게 전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곧 잊히기 때문이다.

8)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외적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이용하도록 권면함으로써 가르침을 마치라.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이요, 둘째는 과거의 죄를 앞으로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외부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라는 권면이다.

그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라 고 간청하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음과 삶에 일으킬 수 없을 때는 매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한 간구를 받았 하나님께 드리라. 둘째로 죄와 유혹이 넘치는 곳에는 일신도 하지 말고 예전의 약한 친구들은 다 끊으라. 셋째로 특히 주일을 공적으로나 서적으로나 거룩하게 보내고 단 10분도 헛되이 쓰지 말라.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자신이 행한 약속을 일깨워주라.

9) 그들을 떠나올 때 격정 말라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가장에게 계속 돌보도록 부탁하라.

그들과 헤어질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행하라.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잘 풀어주라. 여러분이 같은 사람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금방 갖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마련하라.

10) 양들의 신상서를 작성하여 그들의 특성과 부족한 면을 기록

서는 그대가 대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친근하게 하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에는 최대한 알기 쉽게 말을 하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던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저들에게 보여주라. 면담을 내내 진지하게 진행하되 특히 적용부분을 가르칠 때는 더욱 그렇게 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는 면담 전이나 면담 도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고 북돋의 진리와 장치를 보이지 않는 영광과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들과 면담하는 내내 아무리 강력한 경고를 하는 중이라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기에 지시된 것들을 각 사람에게 온전히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9면으로 계속)

###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마지막을 기다리라

인생이 소중한 것은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마지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29:11).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의 인생을 눈여겨 보곤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유다에서 귀족의 자녀로 행복하게 자라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역사 학자들은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7살이나 20살 안팎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린 다니엘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단1:8) 하나님께 순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이기는 분별력의 성품을 기초로 그의 안에 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로 존귀하게 살다가 천사로부터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단12:13).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꼭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시31:19)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고택(苦海)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낙심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품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오늘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끝을 안도함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감사’로 지나간 한 해를 조용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 없는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한 해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미래와 희망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 동부교계 기사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고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목사고시가 5월 3-4일 총회장소인 시카고에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인준 정규신학교 M.Div 학위 졸업자나 2022년 6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사람. 고시과목은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 면접고시로 나뉜다. 응시서류는 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혹은 학교장 확인서, 신학교 전과점 성적증명서, 소속교회장 추천서,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이력서, 명함판 사진 2장이 필요하며 고시료는 100달러.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 (703)725-6468 이메일 663927@gmail.com

## 2022년 신년공식성회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과 AG교단이 공동주최하는 2022년 신년공식성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복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오랄로버츠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학장 마원석 박사. 준비위원장은 김기호 목사, 이학용 목사.

▲문의: (718)279-1414

## ATS 한인총동문회

2021년 ATS 한인총동문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12월 13일(월) 오후 6시 뉴저지 만나교회(88 Hickory Ave, Bergenfield)에서 열린다.

▲문의: (201)647-7766

## 성탄축하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축하 찬양제가 12월 19일(주일) 오후 4시 "메시아 맞으라 메시아 전하라"는 주제로 열린다. 매년 열리는 이 찬양제는 본 교회 산하 4개 회중(한어, 영어, 중국, 러시아)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16일(목)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과일바구니' 행사도 갖는다.

▲문의: (718)886-4040

# 준비위원장 유상열 목사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2차 기도회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2차 기도회가 12월 7일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를 선임했다.

기도회는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및 목사회 증경회장) 인도로 기도 이기용 목사(뉴욕성결교회) 기도후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및 목사회 증경회장)가 설교했다.

한재홍 목사는 "우리는 누구인가?"(마7:20-2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함을 받아 목사가 됐다"며 "목사는 위로하는 자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거룩을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카리스마(하나님의 선물)를 가져야 한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의 심장으로 목회현장에서 목사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2차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어서 박이스라엘 목사(거룩과 평화를 통한 목회자 공동체 되길), 김신영 목사(사랑과 응서하는 선교공동체 되길), 박항우 목사(회개를 통한 목사회 정상화를 위해), 김광섭 목사(목회자간 영적 화합과 결함을 위해)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49회 회장, 뉴욕교협 부회장)는 "49회기는 불법이며 사고회기"라며 "목사회를 정상화 한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함께

하려면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상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자"고 도전했다.

이어서 김정숙 목사(49회기 수석협동총무)가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문수 목사는 "50회 총회에서 재정 감사 보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총회는 무효"라며 "선한 방법은 1)인간적 권면 2)서면 권면 3)일반법에 호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및 목사회 증경회장)는 "연합은 좋으나 회개가 앞서야 한다며 신앙은 성경대로 보수 신앙이지만 제도는 개혁성을 가져야 한다며 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유상열 목사를 추대하자고 제안해 55대 1로 유상열 목사를 준비위원장에 선임했다."

유상열 목사는 "대화를 통한 합의가 최선이다. 세상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다. 그럴 바엔 나누는 편을 택할 것이고 목사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친목차원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도 허길 목사, 폐회 및 식사기도는 박수철 목사가 했다.

(유원정 기자)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마약중독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청소년 마약중독 해결 및 해독 세미나

## 지역교회부흥선교회, 강사 채왕규 목사...은퇴플랜 세미나도

지역교회부흥선교회가 주최한 청소년 마약중독 해결 및 해독 세미나가 11월 30일 오후 7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선교회 대표 허준준 목사는 16년 전 시작된 지역교회부흥선교회를 소개하며 "뉴욕이 연합활동이 잘되는 곳이다. 아프다 살아났기에 앞으로 뉴욕선교사의 집은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우연→반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에스더가 금식기도 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선교사의 집이 하나님이 사 용하시는 도구로 굳게 서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홍 선교사는 지난 15년간 선교사의집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번 모금이 잘 이뤄져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장막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며 도전했다.

한편 예배를 마치고 이용걸 목사는 최문섭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용걸 목사는 "선교사의집 운영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며 "뉴욕의 교회나 기독교 단체, 개인들이 심시일만 돕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시드머니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방법: 체크 Pay to order of에 Sunny Foundation, Inc.를 적어 메일 하면 된다(142-03 39rd Flushing, NY 11354). 혹은 전화 (516)721-8101 최문섭 장로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어나려면 디톡스를 해야 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하나님을 믿는 아이는 잠시 중독에 빠졌어도 금방 돌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는 오래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왕규 목사는 "한인들은 자녀문제를 숨기는데 반드시 목사님에게 알려서 영적으로 회복 받고 중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준준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종태 목사, 축사 김희복 뉴욕교협회장, 격려사 이준성 뉴욕교협 부회장, 특송 테너 심용석, 특별연주 뉴욕필리핀선교무용단, 세미나로 이어졌다.

세미나는 은퇴플랜 서니김 매니저, 건강플랜 허준준 목사, 마약치료 채왕규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더니눔하우스 한국지부 결성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더니눔하우스 한국지부 결성

더니눔하우스(구 뉴욕 나눔의집)가 한국지부를 결성했다. 더니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는 한국을 방문해 대한민국 국민인 서류미비자 한인노숙인들을 한국으로 영구 귀국 시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지부를 결성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알렸다.

11월 10일 한국 문산교회(류병수 목사)에서 대표 임광재 목사, 이사장 류병수 목사,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지부를 정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 더니눔하우스 한국지부를 설립하고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역이민을 원하는 한인노숙인들에게 항공권을 무료로 제

공해 한국 공항에서 안전한 곳으로 픽업하고 자가격리에서 자립까지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을 회복시켜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수급자가 되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주지사 강제퇴거 금지가 해제되면 서류미비자인 한인노숙인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더니눔하우스는 쉼터 리스가 끝나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목사는 쉼터를 구입하는데 한인사회와 교계가 힘을 모아 쉼터 구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기사제공: 더니눔하우스)



뉴욕선교사의 집 후원감사에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위기→우연→반전...하나님 섭리 기대

## 뉴욕선교사의 집 후원감사에배, 12월 10일 퇴거

뉴욕선교사의 집 후원감사에배가 12월 3일 오전 10시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에서 열려 퇴거 위기에 있는 선교사의 집 건물 마련을 위한 후원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선교사의 집은 지난 11월말 퇴거령을 받았으나 10일 더 기간을 연장한 상태에 있다. 대표 최문섭 장로는 "최근 기자회견 후 10만 달러 정도가 모였었다. 그리고 독지가들로부터 건물 구입시 15만 달러를 약정 받았는데, 현재 건물(가격 140만 달러)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비영리 단체 건물구입은 어려움이 많다"며 "선교사의집을 유지하려면 100만 달러 마련이나 건물 현물만이 가능하다"고 광고시간을 통해 밝혔다.

예배는 허준준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김성기 목사, 특송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말씀 김중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도전의 말씀 이동홍 선교사(니카라과), 헌금기도 성기로 장로, 헌금특주 정인국 장로, 축사 김희복 목사(뉴욕교협회장), 격려사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인사의 말씀 정인국 장로(이사장), 축도 임선순 목사(바나바선교회), 광고 최문섭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훈 목사는 "우연같은 기적"(에6:1-14)이라는 설교에서 "오늘 감사예배는 모금을 달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데 예배"라며 "하나님의 뜻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이뤄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방법에 대해 빌 하이벨스 목사는 1)성경과 일치하는가 2)은사에 합당한가 3)섭리는 일인가를 봐야한다고 했는데 선교사의 집은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우연→반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에스더가 금식기도 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선교사의 집이 하나님이 사 용하시는 도구로 굳게 서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홍 선교사는 지난 15년간 선교사의집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번 모금이 잘 이뤄져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장막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며 도전했다.

한편 예배를 마치고 이용걸 목사는 최문섭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용걸 목사는 "선교사의집 운영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며 "뉴욕의 교회나 기독교 단체, 개인들이 심시일만 돕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시드머니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방법: 체크 Pay to order of에 Sunny Foundation, Inc.를 적어 메일 하면 된다(142-03 39rd Flushing, NY 11354). 혹은 전화 (516)721-8101 최문섭 장로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제25회 정기총회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은혜로운 찬양발성법"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우리 몸이 찬양 드리는 악기...

## "은혜로운 찬양발성법" 세미나, 강사 심용석 테너

지역교회부흥선교회가 주최한 "은혜로운 찬양발성법" 세미나가 12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준준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심용석 테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보를 그리는 찬양 작곡가' 오소영 집사.

심용석 테너는 "하나님의 발성법"이 아닌 발성법이 있다"며 음치였던 자신이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음대를 가고 좋은 선생을 만나 테너가 된 과정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발성법에 대해 설명했다.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호흡은 코로 들어가서 단전(배꼽)에 힘을 주어 부른다. 배꼽은 어린아이가 엄마와 연결된 부분으로 아기를

이 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운다.

심 테너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찬양할 특권을 주셨고 찬양하라 하셨다"며 "보컬코드는 근육과 움직임이다. 100% 호흡이 100% 사운드로 바뀌는 벨칸도 창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 테너는 1)첫 번째 주신 생명의 소리 2)아기울음소리를 내라 3)근육을 사용해서 찬양하라 4)찬송가 잘 부르는 방법 5)작곡가 의도대로 부르라 등의 결론을 제시했다.

강의 후 질문을 받았으며 심용석 테너가 오소영 집사가 작곡한 찬양곡을 부르고 마쳤다.

(유원정 기자)

# 뉴욕장로성가단 10대 단장 전병삼 장로

뉴욕장로성가단 새 단장에 전병삼 장로가 선출됐다.

신임 단장 전병삼 장로는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발전과 도약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단원 모두가 단결해 하나님께 영광과 복음의 찬양을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지난 11월 9일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출 무기명 투표로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선출된 단장이 개인의 사정으로 고

사람에 따라 16일 다시 전병삼 장로를 10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직전 9대 단장 김재관 장로는 2018년부터 광야 같은 팬데믹을 거쳐 2021년까지 단장직을 마쳤다.

제26회 임원진은 △단장 전병삼 장로 △부단장 정인국 장로, 부단장 장세환 장로 △총무 배상규 장로 △감사 정운문 장로와 유경준 장로 등이 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임직식을 마치고 교역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5대 솔라 마음에 새기고 섬기겠다”

#### ANC 온누리교회 임직감사예배, 총 119명 임직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5일 오후 4시 임직 감사예배를 통해 시무장로 강찬 외 7명, 시무권사 강윤희 외 13명, 협동장로 임동국 외 1명, 명예장로 강성환 외 10명, 명예권사 강영옥 외 8명, 시무안수집사 김선미 외 74명 등 총 119명의 임직식을 가졌다.

김태형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감사예배는 온전한 양팀의 찬양과 김영민 장로의 기도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민중기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14:6-15) 제목으로 ‘갈렙의 지도력’을 소개하며 말씀을 전했다.

민 목사는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과 개척정신이 투철했으며 원원의 인간관계의 가졌고 후배를 길러낸 사람이었다”고 제시하며 “갈렙이 40세쯤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했다. 그는 세월이 흐른 85세가 되어서도 똑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개척정신이 강해 당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인들과의 전투를 자청하고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섬겼고 자기가 끌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으며 후배를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웃니엘을 세웠다. 오늘 새롭게 세움 받은 임직자들도 변치 않는 믿음과 개척정신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장애물을 헤쳐 나가고 원원

의 인간관계를 갖고, 후배를 키우는 역사를 통해 귀한 나가 주의 모범의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모스박 목사의 임직자 소개가 있는 후 김태형 목사가 임직자 서약을 한 후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와 김태형 목사의 임직 선포가 있었으며 축가 Michael Lee 목사(ANCC 담임)의 축사와 정모세 목사(CRC교단 선교혁신디렉터)의 권면이 있었다.

정 목사는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고 묵묵히 봉사하기 바라며 가정과 일터, 세상상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소금처럼 살아가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임직자 대표로 강승효 장로는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영적 리더십에게 감사한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솔라를 마음중심에 새기고 섬기겠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성자 기자)

### ‘The First Noel’ ...차인홍 교수 간증도

#### ‘2021 밀알의 밤: Christmas Concert’

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관한 ‘2021 밀알의 밤: Christmas Concert’의 ‘The First Noel’이란 주제로 12월 5일 오후 7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종희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본 콘서트는 케리스 챔버의 ‘천사들의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오프닝 연주와 차인홍 교수의 간증으로 진행됐다.

2021 밀알의 밤의 메인 게스트로 초청된 ‘휠체어를 탄 바이올린 연주자 겸 지휘자’ 차인홍 교수는 무대에 올라 ‘넬라판타지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주한 뒤 “음악가로 초정받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스스로 놀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뒤 9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1살 때 소아마비 생활을 하며 겪어야 했던 지나간 삶을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24살까지 학업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24살에 검정고시를 시작해 미국유학 후 대학교수의 자리에 서게 됐는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으며 케리스 챔버와 협연으로 ‘고향의 봄’,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그는 “밀알선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 하시는 단체”라고 밀알 사역을 격려하며 “장애를 비롯한 우리 인간의 약점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넓혀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 밀알의 밤은 현장공연’과 ‘온라인 방송’ 2가지 방식으로 개최됐는데 현장 공연은 12월 5일 동신교회에서 열렸고,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7시에 현장공연의 영상과 함께 ‘김에스더’ 자매가 인도하는 로컬 찬양팀 M514의 찬양, 남가주 밀알 수어찬양팀의 수어 공연, 밀알 장학생 ‘이찬희’ 학생의 간증과 기타연주도 함께 Youtube,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로 전 세계에 생방송 될 예정이다.

한편 ‘2021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2년도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현재 2022년도 밀알장학금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마감은 2022년 1월 28일(금). 자세한 것은 (562)229-0001 또는 office@milalmission.com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밀알의 밤 콘서트에서 차인홍교수와 케리스챔버단이 협연하고 있는 모습.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단원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메시아솔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메시아솔리스트앙상블(이사장 김라니 목사, 단장 이사효, 지휘 박성근) 제 2회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5일 오후 7시 크레센탈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김용근 목사)에서 열렸다.

김라니 목사 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제1부 예언 탄생 △제2부 수난 속죄 △제3부 부활 영상 등 헨델의 작품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표현했으며 이날 모인 청중들은 앙상블의 곡이 마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메시아 솔리스트앙상블은 소프라노 김미경, 김선영, 오헬렌, 이미숙, 이영주, 이지은, 엘토 윌슨, 정희순, 조이김, 테너 백동휘, 오위영, 이남일, 베이스 김경태 이사효 장상근, 피아니스트 김주영 등 남가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음악인들로 구성됐다.

이날 연주회는 공연 중에 연주했던 할렐루야를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김영근 목사 축복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에바다 할렐루야 장학재단 관계자들이 창단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장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열린 BTS 콘서트 관람차 LA에 방문한 플로리다, 오크라호마, 뉴욕, 달라스, 덴버 등에서 찾아 온 발길들로 풍성한 축제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제1회 오렌지 카운티 김치페스티벌이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위러브 찬양집회

위러브 찬양집회가 11월 12일(주일) 오전 9시30분, 11시15분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 15일(수) 오후 7시30분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 18일(토) 오후 7시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19일(주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문의: welove.creative.team@gmail.com

### 소망소사이어티 갈라 취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이번 주일(12일) 열기로 했던 갈라 행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됐다.

▲문의: (562)977-4580

### 한인기독합창단 61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지휘 김동근) 제61회 정기연주회가 12일(주일) 오후 7시 나섬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렸다. 티켓은 20달러, 50달러.

▲문의: (213)503-0812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2월 찬양예배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12월 찬양예배를 실시한다. 8일 손경민 목사하고 함께하는 찬양예배에 이어 15일(수) 오후 7시30분 클래식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찬양예배, 18일(토) 오후 7시 WELove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22일(수) 오후 7시30분 크리스마스 찬양예배로 진행된다.

▲문의: (310)618-2222

### OC전도회연합회 400회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민길) 400회 조찬기도회가 16일(목) 오전 8시30분 로스코요테컨트리클럽(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에서 열린다. 이날 기도회는 선교사자녀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갖게 된다.

▲문의: (213)700-7877

### 나눔콘서트

남가주농인협회(회장 홍윤리) 주최 크리스천 문화교류 및 복음을 위한 나눔콘서트가 16일(목) 오후 7시 히스토리카페(3501 W Pico Blvd)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랜디김 밴드, 클라라 신, 최원현, 김은정, 수어찬양팀이 출연한다. 이날 콘서트는 문화 예술 활동에 소외된 농인들을 위한 농인연극 기금마련을 위해 열린다.

▲문의: (213)503-1298

### LA사랑의교회 제5기 임직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5기 임직예배를 12일(주일) 오전 9시30분에 갖는다. 이날 임직식은 시무장로 2명, 명예장로 2명, 안수집사 9명, 시무권사 20명, 명예권사 5명이 임직한다.

▲문의: (213)386-2233

##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할 청소년 양성

### 에바다 할렐루야 장학재단 창단감사예배

에바다 할렐루야 장학재단(Ephphatha Hallelujah Scholarship Foundation opening Service, 회장 정은남 전도사) 창단 감사예배가 지난 달 20일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 5271 Lincoln Ave, Cypress)에서 열렸다.

회장 정은남 전도사는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물질과 기도 후원으로 잘 성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자 한다. 특히 약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할 청소년을 양성하는 장학재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줄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만이 내면의 상처와 계집, 성, 마약, 담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며 “

이러 정은남 회장이 재단 및 임원소개를 한 후 다 함께 장학재단과 2세를 위한 합심기도를 한 후 최순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장학생 명단: 전휘찬, 문지원, 산 박, Karman, Natalia Sebastian Lilipory, Pontianus Winnerman Giawa

▲문의: (714)534-6004 (정리: 박준호 기자)

▲문의: (714)534-6004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들이 송년 모임을 갖고 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글 많이 쓰길”

####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송년모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목사, 회장 송종록 목사)는 지난달 27일 로텍스 호텔에서 2021 송년 모임을 갖고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장 정지윤 목사는 “오늘 송년 모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롭고 풍성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문인협회 회원들 모두가 영감 있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쓰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송종록 회장은 “지나온 1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회원들 간 서로 안부도 묻고 좋은 글들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감사예배와 시 낭송, 선물교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나누는 친교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 ‘맛있는 김치, 건강한 김치’

### 제1회 오렌지카운티 김치페스티벌

코리아 소울푸드 재단(이사장 캐롤 리)은 3일과 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제1회 오렌지카운티 김치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맛있는 김치, 건강한 김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김치 담그기 체험 외에 K-팝, 고전 무용과

합창 공연, 태권도 시범, 노래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국의 전통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다.

이 페스티벌엔 첫날 250여명 오는 500여명 이상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어린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방문한 자들도 있었으며 지난달 27일과 28일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 자가진단 키트 비치...방역수위 더 높여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발표...주일에 예배 표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교회발 오미크론 확산으로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직후 주일인 5일 전국의 교회들은 긴장감 속에 주일예배를 드렸다. 경기도 고양 A교회는 코로나 1인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8일부터 교회 입구에 자가진단 키트를 비치했다.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체온 체크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따라 자가 진단했다. A교회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되는 성도들이 스

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예배를 자제했다. 서울 마포구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는 "코로나 시대가 2년간 이어지면서 정부 방역 지침과는 별개로 성도들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이 예배에 참석한 교회들은 예배 참석 성도들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B교회는 지난달 28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2부 예배에 참석 한 성도 전원일 자가격리와 PCR 검사를 받았다. 교회도 5일 현장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예배로 전환했다. 교회 측은 "확진된 분은 아주 경미한 증세였고 성도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교회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도 경험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C교회는 성가대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함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회 관계자는 "성가대원이나 성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염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늘렸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하던 식당·카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이번 추가 후속 조치엔 종교 시설을 비롯,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실외체육시설 등 14곳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소통팀 담당자는 "기준에 따라 미접종 시설을 결정했다. 실내시설 중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과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시설도 미접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만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 인증과 재정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승욱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은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다"면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의적 대안교육, 교육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률 통과에 앞장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공교육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가져야 할 교육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 과정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 기준은 통째로 없어졌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면서 "대안학교 학생을 학생이라고 대안학교를 학교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린스 전달까지 매일 저녁 9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C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게더타운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온라인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었다. A선교사는 "페이스북에 복음 광고를 올렸다. 이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다"며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선택특강은 이틀간 3개 주제 트랙 내 총 12개가 마련됐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최근 주목받는 주제에 관심이 쏠렸다. 이종엔 Z세대를 메타버스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더샌드박스 이요한 한국사업개발 총괄 이사는 "메타버스에서 사역하는 리더는 Z세대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낀 기성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Z세대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샌드박스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FMnC 이사인 전생명 선교사도 "(기성세대는) Z세대에게 메타버스를 배우고 그들이 메타버스 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MnC 박준호 이사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이화선 온라인마케팅 팀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게더타운 활용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 FMnC는 지난달 22일부터 제페토에 ITMC월드를 만들어 콘퍼

## 한교총 총회 파행...정관개정 놓고 시각차

회의록미공개·1인 대표회장 체제 반발, 임원선출 못한 채 정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정기총회가 2일 정관 및 규정 개정의 적법 여부를 놓고 총회대의원(총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회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중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기총회는 차기 대표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교단을 대표해 나온 일부 총대가 정관 개정을 추진한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를 문제 삼으며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에서 "본회의 대표자는 대표회장·이사장 1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총대에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내용 등을 총대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상임회장이 리더십 강화를 위해 1

인 대표회장 체제로 무리하게 전환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또 현재 4년 단임제인 한교총 사무총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 한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처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의장을 맡은 소강석 대표회장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의된 부분만 회의록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항변했다. 지형은 한교총 상임회장도 "총회 결의의 안건으로 정관 개정 건이 올라 논의를 앞둔 데다 관련 내용도 총회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사무처운영규정 개정 건도 한교총 법체계 상 임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는 보고만 하기로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절차와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상임회장단만 한 차례 정회를

선언한 후 따로 모여 회의 진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소 대표회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총회는 중단됐다.

소 대표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안건을 재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속회하겠다"고 밝혔다. 정회 이후 소 대표회장은 "총대가 문제 제기한 대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원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하려 한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조만간 임원인선위원회 등을 다시 꾸려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총회를 속회할 예정이다.

한교총은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기관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부 의견조차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려던 기관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기독교대안학교 내년부터 법적 지위 얻어

대안교육기관법률 1월 시행...실질적 지원에 한계

내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그러나 실제적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통해 대안학교 학생이 보편적 교육권을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열어 "기독교 대안교육의 법적 보호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법제처 법제관을 지낸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장은 "제정된 법률은 공교육 밖에 있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으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를 닦는 데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며 "다음 달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이 대안교육기관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세, 사회복지, 교육지원, 국가자격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 준하는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 세법과 교육 관련 법령 등의 정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등록,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취학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원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일상도 나눔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갈 때'

한국구세군(사령관 장만희)은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21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자선냄비 거리모금을 시작했다.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1928년 12월 15일 명동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93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최초의 구호활동이다.

올해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거리에서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Ring Together!)'라는 주제로 1일부터 전국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이와 함께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문화 역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 광장에서 대면으로 진행

된 시종식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축사 대독 김대현 총무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장만희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구세군 브라스밴드 연주와 나눔의 타종식 등 구세군과 서울시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코로나 19로 지난 한 해 소외된 이웃들의 삶은 더 궁핍해졌고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는데 지금이 아말로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모금 독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자선냄비를 향해 보내주시는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는 구세군이 되겠다"며 시민들에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세군은 올해 목표 모금액을 132억으로 설정했다.(12월 거리모금 30억) 가장 필요한 곳부터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세군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VR 전시와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금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다. 기부금 마이크로 트래킹, QR 간편 기부 등의 기능을 활용해 모금부터 사용까지 투명한 기부 캠페인을 선보이고 기부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전국 17개 시도 약 320여개의 포스트에서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 및 캠페인 참여방법, 자선냄비 위치, 온라인 모금 ARS, 문자 기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비대면 교회교육에 새 바람 일으킬 것”

예장합동, 메타버스 활용한 교회학교 교재 발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총회가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회학교 교재를 발간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사장 송태근 목사)은 3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교회(오원석 목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교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교육개발원은 교회에서 여름과 겨울에 활용하는 계절공과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계절 공과는 장기간 같은 주제로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학기 공과와는 달리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이후 비대면예배를 고려해 온라인

으로 공부할 수 있는 '웹공과', 줌(Zoom)을 사용할 수 있는 '줌공과'를 잇따라 제작했다. 이번 겨울에는 메타버스를 교재에 접목했다.

송태근 이사장은 "대면으로 하는 교회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목회나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흥해를 갈라 길을 보여주셨듯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재는 영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청소년부 등으로 출시되며 각 3과로 구성됐다. 교재

안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연령대가 높은 교회학교 교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겨울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단기간 특별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재의 주제는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요'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나한규 총회교육개발원 팀장은 "주기도문은 일종의 비전 선언문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목적 등이 주기도문에 함축되어 있다"며 "이번 교재가 비대면 시대에 잘 활용되어 학생들이 주기도문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타버스 사역, Z세대에게 맡겨야”

기술과학인선교회, 줌 통해 ITMC 열고 적용 논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에 교회를 세우는 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최근 급부상한 메타버스 사역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 Z세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 과학인선교회(FMnC)는 지난 2-3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ITMC2021,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를 진행했다. FMnC는 2013년부터 2년마다 ITMC를 열어 사회이슈에 대한 선교적 관점과 적용 부분을 논의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관심받는 온라인 예배와 선교, 메타버스 등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사역 방법을 소개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주강사로 나섰다. 유 목사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다"며 "지난해 온라인 전도 집회 때 3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올해는 3000명이 참석해 200명이 결신했다. 오프라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메타는 초월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란 뜻이 있다. 기존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메타처치의 시대"라며 "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구약과 함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적 언어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며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선택특강은 이틀간 3개 주제 트랙 내 총 12개가 마련됐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최근 주목받는 주제에 관심이 쏠렸다. 이종엔 Z세대를 메타버스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더샌드박스 이요한 한국사업개발 총괄 이사는 "메타버스에서 사역하는 리더는 Z세대에서 나올 수 있다"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낀 기성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Z세대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샌드박스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FMnC 이사인 전생명 선교사도 "(기성세대는) Z세대에게 메타버스를 배우고 그들이 메타버스 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MnC 박준호 이사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이화선 온라인마케팅 팀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게더타운 활용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 FMnC는 지난달 22일부터 제페토에 ITMC월드를 만들어 콘퍼

## “평행선 서로 만나려면 힘 빼고 사랑으로”

제 53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2년 만에 현장기도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속 2년 만에 현장 기도회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선후보, 정계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설교 강단에선 이 시대 회복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성경적 사랑의 원리가 강조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선 김학중 안산 꿈의교회 목사는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행복할 수 없는 모순의 뒷면에 놓여 있다"며 "이를 끊을 수 있는 답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살아남기 위해 현대인들은 세대 갈등도 불사한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경쟁한다"며 "이유를 물으면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서 행복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 어떤 논리도, 명분도 사랑이 없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희생의 사랑, 이를 몸소 실천하는 동사로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성경 속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김 목사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인용, 아브람과 롯의 목자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브람의 문제 해결법에 주목했다. 그는 "아브람과 롯 소유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키울 만한 땅이 부족해졌다"며 "이로 인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아브람은 롯에게 잠깐 머물 만한 제안을 한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브람은 한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고 한 부족의 족장이기도 했다. 당연히 롯보다 많은 힘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아닌 한 발 양보하는 선택을 한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소

외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날 기도회를 하나의 큰 식탁에 비유했다. 그는 "여기 진보와 보수가 함께 모여 있다. 기성세대 청년도 함께하고 있다"며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건과 생각을 넘어 한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행선이 서로 만나려면 힘을 빼고 사랑으로 구부러야 한다. 직선의 양극도 힘을 빼고 사랑으로 구부리면 원이 된다"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 mission 선교의 창 (18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소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본 작품은 종교적 배경을 깔고 있으나 뛰어난 문학성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있다. 이 장편소설은 1942년 A. J. 크로닌(Archibald Joseph Cronin)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의사였다. 스코틀랜드의 덤버튼에서 출생하였으며 의학을 전공한 후 해군 군의관과 탄광 의사를 지냈다. 그 후 개업하여 크게 번성하였으나 소년시절부터 꿈꾸어왔던 소설가로 직업을 바꾸었다.

그는 주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 여기 “천국의 열쇠”는 작가가 성장하던 때의 종교적 갈등과 자기 생애를 배경으로 하는 자전적 성격이 짙다. 그는 생생한 인물 묘사와 극적인 플롯(Dramatic Plot), 종교적 정신에 입각한 휴머니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주인공인 “프랜시스 치섬과 그의 친구 안셀모 밀리”라는 주교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쥌 수 있는가를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한다.

### 1. 주인공의 인생

이 책은 주인공 치섬 신부의 회고담으로 시작된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학교로

들어갔다. 치섬은 주위의 냉대 속에 간신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좌신부로 몇 군데의 성당을 거치나 주임신부와 화합하지 못했다. 이로서 로마 해외포교단에 의해 그는 중국에서 오지인 절강성 파이탄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주인공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했다. 페스트가 유행하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힘썼다. 내전, 무서운 기근, 비적들의 노략질 등을 견뎌냈으며 성당을 재건하고 학교를 세웠다. 모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치섬 신부는 총탄이 남긴 흉터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절름발이 노인으로 변했다. 결국 그는 사역에 대한 선교부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은퇴 명령에 따라 실패자의 모습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작별하던 날 수많은 신도들은 찬송가를 합창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꽃가루를 뿌렸다. 배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게 되자 선교사는 35년간 정들었던 파이탄 마을을 보며 일등을 향해 손을 들었다. 노신부의 얼굴은 어수선하게 뒤뉘어지고 뺨에는 형언

할 수 없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 내렸다.

### 2. 천국에 대한 작가의 생각

본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천국 이해는 김영웅의 책과 일상에서 잘 언급해 놓았다. 내용인즉 그것은 “가톨릭이나

만일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주인공 치섬은 산술적 수치로 보면 실패한 선교사에 해당된다. 작가는 화려하고 출세지향적인 사역자를 무언중에 질타하고 있다.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나 철학, 이슬람교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이나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현세를 등지는 듯한 장소를 떠올린다면 더 큰 왜곡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천국은 보다 넓고 풍성한 의미로써 개인의 종교관, 철학관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문하고 사유할만한 인간다움이나 바른 삶과 같은 보편적인 의미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C. S. 루이스가 말했던 도덕률이 조화롭게 지켜지고 구약성서에서 강조되는 정의와 공의가 순조롭게 행해지는 세상,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을 떠올리는 편이 이 작품 속 ‘천국’의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아무튼 작가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간접적으로 질타한다. 인류는 국가나 인종, 종교가 다르거나 사상,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직 참사랑과 평화 속에 만날 수 있는 화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종교의 형식적 계율에 구속당한다면 오히려 참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 3. 천국의 열쇠를 쥌 수 있는 사람

프랜시스 치섬과 안셀모 밀리는 같은 고향 친구였다. 그들은 신학교를 거쳐 신부가 된 이후에도 표면상 성직자로서의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삶의 궤적은 교차하는 두 수직선처럼 커져만 갔다.

프랜시스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 외모는 작고 바짝 말

출세의 계단을 요령 있게 밟고 올라갔다. 그는 가톨릭에서 주요한 보직을 거쳐 주교 자리까지 단 한 번의 뒷걸음질도 없이 승승장구했다. 그는 한마디로 위엄과 품위를 갖춘 성공한 신부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이 둘 중 누가 천국의 열쇠를 쥌 수 있을까?

### 4. 작품에 대한 평가

이 소설은 문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유의 다면체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닿아 공명을 일으키게 한다. 작가는 가톨릭 사제인 치섬을 성화된 인간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반항기 어린 소년, 열정적인 청년, 다정한 노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때로는 미소 짓게 만들고 때로는 조용한 감정의 파도를 타며 가슴 아파 흐느끼게도 한다. 그는 고투의 삶 끝에서 “내 평생 단 한 번의 소원입니다. 당신

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경쟁하며 얼굴 붉힐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문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절대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천국은 인간의 덕과 선행이 있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신약 신학자 GE Radd에 의하면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가 드러나는 그 자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쟁점(Issue)은 문학 장르로서 수용할 수 있다 해도 신학적 해석으로는 접수할 수가 없다.

### 맺음 말

이 작품은 선교사의 전기가 아니라 작가의 이상향이 담긴 소설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성공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안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누가 성공한 목회자요, 선교사인가?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적 구조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안달이다. 문제는 정치관처럼 자기 출세를 위해 참세 때처럼 양지만을 쫓아 다닌 사역자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선교에서 성공이란 없다. 승리가 있을 뿐이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인공 치섬처럼 자유함을 누리며 울곧게 살아야 한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와 청빈과 용기로 일관하고 관용과 미덕으로 이웃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표출함이 마땅하다. 천국의 열쇠는 전능자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 아무래도 위엄, 품위, 권세를 대표하는 밀리 주교보다 겸손, 소박, 진정성을 대표하는 치섬 신부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jrson007@hanmail.net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18) 데살로니가를 찾아서



강태광 목사 (월드웨이USA대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선교팀은 암비블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50킬로(km) 떨어진 곳이었습니. 바울 선교팀은 그리스 반도 북부를 동서로 있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를 통해 이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동했던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경로를 밝힘으로 그들이 로마의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를 이용하여 이동했던 것을 밝힙니다.

데살로니가(Thessalonica; Θεσσαλονίκη)는 에게해 북서쪽 테마만(Themaic Gulf) 끝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의 주요 무역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Thessalonica)라는 도시 이름은 기원전 31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인 카산더 장군은 새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

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 그의 아내 데살로니가는 필립 2세의 딸이요 자신의 주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배를 받던 데살로니가는 BC 168년에 피드나 전쟁(Battle of Pydna)에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무찌른 후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습니. 그 후 BC 148년에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되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데살로니가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마케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도시입니다. 바다와 연결된 항구도시와 두강(바다르 강과 비스트

릿자 강) 그리고 로마의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Via Egnatia)가 교차하는 데살로니가는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더불어 국제 상업 도시로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와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

다. 유대인들도 다시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바울이 방문했던 회당을 위시해서 데살로니가에 다수의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고 헬라문화가 번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Civitas Libera)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선출된 5-6명의 읍장들(

라 불품이 없었다. 치섬은 신학생 시절부터 남들과 사뭇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그는 좌천격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선교사를 은퇴할 무렵 치섬은 얼룩투성이의 때가 낀 남루한 옷차림, 뺨에 남은 깊은 흉터와 거칠어진 외모, 선교기간에 입은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패배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밀리는 정 반대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신앙심이 두터운 유복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반장 노릇을 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주도면밀한 대인관계와 화려한 언행으로

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신다운 사제보다는 사람다운 사제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다. 신념에 찬 자기 확신으로 인류의 동포애를 주장하고 있는 크로닌의 신앙은 박제된 교리로 비인간화 된 사역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주고 있다. 진정 이웃사랑 없는 신앙은 위선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휴머니즘 차원에서 선행과 그리스도도 인한 사랑의 실천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겉모양새를 비슷할지라도 동기와 지향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작가의 천국관은 현대의 유행하는 다윈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

(Gaius Julius Caesar)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시이저가 암살된 후에는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 분위기는 데살로니 시민들의 폭동(행 17:7)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었다.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Διόνυσος)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로마 신화에 술의 신 바커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써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인들은 이 종교의 영향으로 술을 탐닉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일삼아 데살로니가는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은 이 타락을

종교의 영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 심판 메시지를 받을 때 개념을 쉽게 이해했지만 곡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서에는 부활과 종말 신앙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두 사람 야손(Jason)과 아리스타고(Aristarchus)가 등장합니다. 야손(행17:5, 롬16:21)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카비서가 비교적 상세하게 야손을 소개합니다. 야손은 70문도 중에 하나이며 바울의 고향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그를 다소의 감독으로 임명했습니.

아리스타고(행19:29, 20:4)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로마행을 동행합니다. 성경은 아리스타고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나 F.F. 브루스(Bruce)는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시종(侍從)으로 바울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타고는 예수님의 70문도 중에 하나이며 훗날 아파메아의 주교로 봉직했다고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chap1207@hotmail.com

##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사역 다인종 국제 상업 도시로 헬라문화 번성...3개 종교에 대항

경고합니다(살전4:7). 셋째는 카비루스(Cabirus)의 숭배였습니다. 카비루스는 하층민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민중들은 자신들을 대변한 카비루스를 영웅적 순교자로 추앙하며,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은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그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다. 당시 주로 세 종류의 종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버린 것을 바울이 칭찬합니다(살전1:9). 이 종교들이 데살로니가 선교와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숭배 종교입니다.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율리우스 시이저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신실한 삶(눅17:34-37)찬447장

인자가 강림할 때와 그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던 주님은 그 날에 가질 바른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버려두는 일이 생깁니다(34-35). 잠자리, 일터 그리고 일상생활에 흠연히 나뉘지는 일은 인자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실해야 합니다. 둘째, 들림을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쉬어 살지만 그 날은 자기 백성을 구분해 그 나라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오신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재림이전에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지진,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 그리고 극도의 타락 등이 일어납니다. 그 때 우리는 순간순간, 신실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화 항상 기도의 의무(눅18:1-8)찬482장

첫째,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일입니다. 어떤 제물을 가질 때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듯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제물이 전심으로 전해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열심히 요청함은 그만큼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같은

진실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괴로워서 응답하는데 택한 자를 위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기도는 신속한 응답을 받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회생이 반복된 기도로 표현될 때 믿음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귀한 응답의 약속을 오늘도 내 것으로 받아 누립니다.

### 수 믿음의 기도(눅18:7-8)찬343장

택한 자가 취할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입니까? 첫째, 종말을 당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수많은 종말의 고통을 이것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함이 종말 시대에 좁은 길을 걷는 일입니다. 영생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기도의 골방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마6:6). 둘째, 그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수고를 드린 기도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난관 속에서도 새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옵니다. 셋째, 주님은 잠된 믿음을 찾으십니다. 들음으로 시작한 말씀은 기도를 통해 더 강해지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 목 세리의 기도(눅18:9-13)찬482장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는 산상보훈의 기초인 팔복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11). 가난한 심령 곧, 성령의 비취심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은 그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옵니다. 둘째, 그는 회개했습니다(13). 죄의 실상을 아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요일

1:9). 자신의 추함을 시인하고 슬퍼하고 다시 그런 자리에 들어오지 않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향복함이 참 회개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13).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살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기도의 제물을 찾으십니다.

### 금 바리새인 기도의 문제점(눅18:11-14)찬347장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비교해 드린 외식된 그의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집니까? 첫째, 그는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따로 구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돌보이려고 행하는 기도는 가증된 것입니다. 둘째, 그의 감사는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의 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에 두지 않는 것은 완전 실패입니다. 셋째, 불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난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외식은 이렇게 사탄을 어렵게 만듭니다.

### 토 어린이 같은 신앙(눅18:15-17)찬73장

어린이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유아의 일반적 성격을 본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무사기성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대로 하는 것이 천국백성의 본입니다. 꺾먹이가 독사의 꿀에 장난하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는 모습(사6:7-8)은 진실이 그 나라의 왕권입니다. 둘째, 그들이 받드는 마음 곧, 신실한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력이 없어도 순종하면 이깁니다. 셋째,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 안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진실한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타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권위에 기대고 그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 교회음악 이야기(4)

### 대강절(Advent) 찬양 이야기

"This was the most glorious day that I have yet seen."

이 글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가 1736년 1월 25에 쓴 일기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존 웨슬리가 그날 생사의 갈림길 현장에서 동생 찰스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와 함께 경험했던 암울했던 하나의 큰 사건을 바탕으로 쓴 일기로 그들은 이때의 사건이 자신들의 제 2회심사건이라고 말한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날 거대한 폭풍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채 메시아의 도래를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심에 존 웨슬리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이와 같이 "나의 삶에 있어 오늘과 같은 최상의 영광스러운 날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의 나라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며 자부심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루터보다 100여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다 처참히 화형을 당한 체코출신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2-1415)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극히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1736년 당시 대서양을 항해하던 가운데 나타난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메시아로 인한 소망을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서로가 너무 대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Advent) 절기를 보내며 이에 관련된 대강절 찬양들을 드리고 있다. 교회력으로 가장 처음 시작되는 절기인 이 대강절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성탄절(12월25일)을 전으로 4번의 주일을 지키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어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지켰던 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중요한 절기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로 저술가인 레리 크랩(Larry Crabb, 1944-2021)이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 마지막 챕터를 보면 그가 피부암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던 가운데 고백하는 고통스런 치유를 서술하고 있다.

그가 60대 초반에 피부암 진단을 받고 어깨와 등에 항암요구를 바르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발견한 이야기였다. 항암요구를 바르며 치료를 받던 어느 주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소견은 "그 고통은 항암치료제에 대한 반응으로,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물론 엄청 심하겠지만 그것은 극히 정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며 계속적인 고통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첫째는, 피부에 암이 퍼져 있는 곳에 잠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앞으로 길고 치명적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피부에 암 덩어리가 모두 다 타버리면 그 밑에 아기의 살과 같이 새 살이 돌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40장 3-5절을 볼 수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40장은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 후반부의 시작으로 전반부에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재앙을 기록한 것에 반해 이들에게 내릴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예언을 하는 시작부분이다. 이 이사야 40: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아울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한 예언이기도 하다(요1:23).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골짜기, 산,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C.S.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올 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계속되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찬양들을 드리고 예배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 아울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드신다는 또 하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바른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yoon@wmu.edu



인/터/뷰

캄보디아 선교사부부 이일훈 목사, 박수영 사모

캄보디아 5년차 부부선교사 이일훈 목사(왼쪽)와 박수영 사모(오른쪽) 부부가 뉴욕 방문(백신접종 목적) 중에 본사를 찾았다. 사모 박수영 선교사는 퀸즈장로교회 파송으로 2013년 6월 캄보디아 씨엔립에서 사역을 시작해 벤엘교회 건축(2014년 6월 완공)을 한 열성 여성 선교사다. 그 후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의 소개로 한국에서 목회사역 중이었던 남편 이일훈 목사를 만나 결혼했다. 현재 캄보디아 선교 5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부부가 합심해 플러스알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소망은 아이들...기독교 가치관 갖도록 교육

유치원 사역 시작, 청소년으로

첫해에는 언어훈련, 문화적응 등을 하며 어린이 대상 전도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방과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주일에는 교회에도 오도록 했는데 (원래 목적이 주일예배 참석이었다) 100%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부모가 반대하면 어린이들은 관리가 잘 안됐다. 사역을 진행하면서 열매를 모아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해부터는 청소년 사역으로 집중했다. 청소년들은 복음에 개방적이다. 외부세계에 열려 있고 부모에게도 존속돼 있지 않아서 사역이 안정돼 갔다. 3년째엔 멤버십이 40명이

될 수 없어서 집 근처에 가서 일대 일로 만나 심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줌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핸드폰이 없

최종 목표는 기독교교육

앞으로의 사역은 벤엘교회 가 센터가 돼 학원사역을 하는데 기독교 인재 양성을 첫



이인철선교사부부

24시간 아이들 담을 학교시스템이 최적 높은 교육열 힘입어 수준있는 학교운영

되고 지속적으로 출석했는데 4년 차에 코로나가 터져 버렸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속 모이고 있고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바라기는 그들이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면 전 세대가 복음화 되는 일이 5년 내에 가능해진다고 예상한다.

청소년 사역 확장과 열매

교회 사역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벤엘 유치원 사역 1년 만에 40여명의 청소년이 함께 부모 초청 집회도 가졌다. 또 지역사회에 아이들과 청소년 전도 집회 계획하던 4년 차에 코로나가 터졌다.

2년간 학교 휴교령, 예배금지 상황이 됐다. 가만히 있

서 힘들었는데 올해 킹덤미션(2021년 퀸즈장로교회 단기선교)으로 전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핸드폰이 지급됐다.

중국산 백신으로 올 11월부터 백신 접종율 90%가 돼 교회예배가 오픈되고 청소년 사역도 계속 할 수 있게 돼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정부 방침에 국민들이 순종을 잘한다.

정부 인가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다. 교육부로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 또 재산(부동산)이나 행정 관련 등 법률적인 안전장치가 완비됐다. 이제 후원교회와 교실이나 기숙사, 강당 등 건축 논의 중에 있다.

목표로 삼고 헌지인 목회자 양성과 오픈미션 리더 양성까지 비전을 세웠다.

캄보디아는 95%가 불교(힌두교와 섞인)로 공립학교 수업에서도 스님의 설법으로 시작하며 모든 커리큘럼과 행사가 불교적이다. 그러나 벤엘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므로 채플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며 커리큘럼에 성경과목이 있다. 이런 사정을 학생과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는 빈부 격차가 심하고 교육열도 높다. 부자들은 아무리 비싸도 좋은 학교에 보낸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 기독교 학교지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승산이 있다.

(16면으로 계속)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4.가정선교와 가정예배

온전한 가정선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버지의 권위, 부권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부권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예배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제사장, 인도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사역(Jail Mission)을 하시는 LA Sheriff Department Chaplain 이병희 목사에 의하면 LA카운티 교도소에 한인 재소자가 90명, 주 전체에는 약 400-50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데 평균 4인 가정으로 볼 때 약 2000명의 한인들이 카운티 교도소와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최근 4-5년간 저들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이 교인 출신이었고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1)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 (4) 가정예배는 어떤 형식에 매이거나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 온 가족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5) 가정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6)가정예배는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므로 예배의 의미를 심어주어야 한다.

2. 가정예배를 위한 12가지 제언 (크리스천 라이프, 2/15/98, (9))

(1)가정예배에 최우선을 두어라. (2)아버지가 인도자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가족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시작하라. (3)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4)성경을 교재로 하라. 그러나 필요에 따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한다. (2)가정예배의 횟수는 하루 한번,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등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이민가정의 특성상 매일 못 드린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성이다. 특히 명절, 생일, 추모일 등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림이 바람직하다. (3)가정예배의 소요시간은 20분 정도가 바람직하나 30분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좋다. (4)가정예배의 인도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주도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아버지가 안계시거나 출타 시에는 어머니가 예배인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는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아버지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온전한 가정선교를 위한 최선책은 아버지 권위회복 부권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예배의 활성화

번도 가정예배를 드러본 적이 없었고 (2)한 번도 새벽기도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3)한 번도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정예배가 아버지의 권위, 부권회복과 온전한 가정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1. 효과적인 가정예배를 위한 6가지 전제

(1)가정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와 엄마가 말과 행동에서 신앙적, 영적인 모범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3)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라서 좋은 가정 예배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다. (5)순서는 다양하고 변화 있게 하되 찬양, 간단한 기도, 말씀, 적용을 위한 토의 또는 암송, 기도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6)되도록 자녀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 (7)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순서에 참여하도록 하라. (8)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진행하라. (9)한두 번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인내를 배우라. (10)자녀들에게 어려서 예배습관을 길러주도록 하라. (11)때로는 외부 손님이나 강사를 초청해 보도록 하라. (12)짜 기도, 대화식 기도, 돌림기도, 대표기도 등을 변화 있게 활용하라.

3. 효과적인 가정예배를 가려면?

(1)가정예배 시간은 아침 출근, 등교 전이나 저녁식사 후 등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온

자녀들을 훈계, 양육하며, 예배 후 안수하며 축복을 빌어준다. (6)가정예배를 마친 후 서로 약속하며, 께안고 가볍게 등을 두들겨주는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다. (7)가정예배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간증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 어떠한 가정문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가정예배로 아버지의 부권도 회복시키고 온전한 가정선교와 행복한 가정,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선교사를 양육하는 훈련장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 정치와 복음주의 신앙 맞물림 현상에 지쳐간다

## TGC, Z세대 크리스천 좌절시키는 기성 크리스천 세대의 5가지 문제점 제시

기성 크리스천 세대가 젊은 Z세대 크리스천을 잘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분명 이는 중요한 주제다.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이콥 머리(Jacob Murrie)는 1997년과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점을 분명하게 짚어준다. 다시 말해서, 현대 복음주의 문화의 양상을 짚어보면 그 안에서 젊은 세대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걸림돌을 거론한다고 해서 기성세대의 허물을 들추거나 젊은이들이 더 깨어 있다

### 1. 당파 정치로 신앙을 판단하는 현상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성 세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와 복음주의 신앙의 맞물림 현상에 점차 지쳐왔다. 그 이유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정치적으로 온전히 연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어른 세대가 우리의 기독교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만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다 싶으면 우리 신앙이 위협에 빠졌다고 간주한다.

기성세대는 사무엘상 8장 6-8절에서처럼 우리가 왕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세대의 대부분은 보수나 진보의 성향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비취지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30세 미만 젊은이 35%가 무소속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행태는 때로 순진하거나 경험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Z세대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선택이다.

### 2. 변증론이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

분명히 하자. 기독교 변증론은 중요하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믿음이 합리적인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Z세대들은 기독교 변증론이 불신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나는 세상의 무신론자들과

싸워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 사립 기독교를 졸업했다.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며 논쟁을 걸어올 것이라고 가정하며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기독교를 이상하게 여기며 싸움을 걸어오는 아주 부정적인 젊은 이보다는 외로움 속에서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났다.

나에겐 불신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변증법은 교우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더 긴요했다. 가령 '만약 하나님이 선한다면 왜 악을 용납하는가?'와 같은 까다로운 질문에 사려 깊은 답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 'God's Not Dead'의 무신론자 제프리 래디슨 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취약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거나 호기심 많은 동료들

닌 두 대통령 후보를 목도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다수에게 그것은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상당수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을 외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응

전체 사회를 물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외치고 싶은 구조적 죄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 신실하게 살려는 많은 Z세대들은 비록 정

서 이 둘에 대한 정의는 왜곡돼 왔다. 성경적 계명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심판으로 비취지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다. 죄를 짓는 형제자매와 대면할 때 심판



## 당파 정치로 신앙 판단, 잘못된 변증론, 믿음대로 안 살아 진지하고 비판적 사고 쇠퇴, 게으른 지적(知的) 행동 증가

이 그런 식의 질문을 해왔다. 만약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할까? 물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말할지 어 조나 타이밍은 변해야 한다.

### 3. 크리스천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런 문제를 2020년 총선에서 실감했다. 인격이든 정책이건 간에 명확하게 비도덕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가치를 지

호하려고 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위선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민감하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위선을 목격했다. 우리는 또한 신학적 위선과 선택적으로 적용된 교리에 민감하다.

성경적 성윤리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인용되지만 이혼이나 혼전동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교리는 낙태의 문화시스템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죄가 구조적 형태를 띠 수 있고

치적 노선과 상충하더라도 삶 속에서 성경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4. 크리스천들이 사랑보다 심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

심판과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다. 은혜와 회개도 다 복음의 내용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요한 복음 8장 11절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랑보다 심판에 가깝다. 물론 우리시대의 문화 속에

을 떠올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바로 사랑이다.

세속 문화 속에서 왜곡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랑의 비전을 품는 것은 실제로는 성경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살아내는 방법이다. 진리와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기독교가 '너무 심판적'이라는 비난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성경의 도덕적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바라기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되며 불신자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다. 바로 로마제국 시대에 초기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 5. 크리스천이 신중하게 사고하지 않는 경향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비판적인 사고가 쇠퇴하고 지적으 게으른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그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잘못된 정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전문가의 조언은 곧잘 외면한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소셜미디어에서 근거 없는 기사나 음모론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크리스천 아줌마가 있을 것이다. 사실 확인도 없이 의심스런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아줌마 말이다. 이런 건 우리를 실망시키는 더 커다란 추세의 부산물 중 하나다. 즉 학술적이고 지적인 삶에 대한 불신을 말한다.

이런 사례가 실망스러운 이유는 학술계가 궁극적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 때문이다(시19:7).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지적으로 가장 역동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에게 오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엄격한 학문, 자격, 전문성을 경시하는 탓에 문화 창조에 최전선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그러면서 뒤늦게 따라잡기에 나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상가이자 문화 주창자가 돼야 한다. 우리는 배움과 교육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다.

## 인터뷰

(15면에서 계속)  
기독교 가치관 갖도록 교육

사역을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태

도로 이들은 혜택을 받아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 힌두교 색채가 강한 불교가 95%를 차지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친다. 그런 세계관을

바꿔주기가 힘들다. 또한 50년 전 있었던 킬링필드가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불의나 잘못된 것에도 나서지 않고 (정치적) 권위에 복종적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즉, 내

가 신이 되는 것. 고마워 할 필요가 없고 현실 이익만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 밖에 없다고 생각해 24시간 아이들을 담은 학교 시스템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기독교 핍박은 없다. 기독교가 워낙 미약해서(1% 정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 기독교가 교육이나 의료 등 도움을 주니까... 캄보디아에는 현재 1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으며

장로교 7개 교단이 공동으로 세운 캄보디아장로교교육노회(노회원 150여 명)가 있으며 노회 산하에 신학교가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cambodiabethel@gmail.com  
(유원정 기자)